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40992

2011년2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 분석

-7학년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문 희 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 분석

-7학년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Korean Textbooks
under the Revised Curriculum
: the grammar of the 7th grade

2011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문 희 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 분석

지도교수 최 재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문 희 정

문희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강옥미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석주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재희 인

2010 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초 록

제1장 서 론 ·····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1.2. 연구 대상 및 방법 ····· 3

1.3. 선행 연구 검토 ····· 5

제2장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개관 ····· 8

2.1.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 8

2.2.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중점 사항 ····· 9

제3장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 분석 ····· 15

3.1.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 문법 영역의 개정 사항 ··· 15

3.2. 문법 영역의 학습 내용 ····· 19

제4장 7학년 문법 영역의 단원 분석 및 문제점 ····· 26

4.1. 7학년 문법 영역의 내용 ····· 26

4.2. 7학년 국어 교과서 문법 영역 분석 ····· 32

4.3. 분석 결과 ····· 68

제5장 결론 ····· 71

<참고문헌> ····· 74

<표 목차>

<표1> 마산 지역의 7학년 국어 교과서 선정 현황 ····· 4
<표2> 7차 교육과정 '국어 지식' 영역 내용 체계 ····· 16
<표3> 개정 교육과정 문법 영역 내용 체계 ····· 16
<표4>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담화 학습 내용 ····· 19
<표5> 개정 교육과정 문법 영역에 제시된 담화 학습 내용 ····· 20
<표6> 국어과 국민 공통 교육과정 내 문법의 학년별 문법 내용 항목 ··· 22
<표7>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 학습 내용 배열 양상23
<표8> 7학년 교육과정 문법 영역 성취 기준 ····· 26
<표9> 7학년 문법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 31
<표10> 천재교육(박영목 외) 교과서의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표 ·· 35
<표11> 교학사(김형철 외) 교과서의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표 ····· 40
<표12> 천재교육(김대행 외) 교과서의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표 ·· 45
<표13> 천재교육(노미숙 외) 교과서의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표 ·· 51
<표14> 지학사(이용남 외) 교과서의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표 ····· 56
<표15> 미래엔컬처(윤여탁 외) 교과서의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표61

<그림 목차>

<그림1> 천재교육(박영목 외) 교과서 215쪽 : 사동과 피동 ····· 38

<그림2> 교학사(김형철 외) 교과서 147쪽 : 품사 ····· 42

<그림3> 천재교육(김대행 외) 교과서 18쪽 : 관용어 ····· 47

<그림4> 천재교육(김대행 외) 교과서 86쪽 : 지시어 ····· 48

<그림5> 천재교육(김대행 외) 교과서 25쪽 : 관용 표현 ····· 50

<그림6> 천재교육(노미숙 외) 교과서 164쪽 : 지시어 ····· 53

<그림7> 지학사(이용남 외) 교과서 258-259쪽 : 사동과 피동 ····· 58

<그림8> 지학사(이용남 외) 교과서 143-145쪽 : 관용 표현 ····· 60

<그림9> 미래엔컬처(윤여탁 외) 교과서 61쪽 : 지시어 ····· 62

<그림10> 미래엔컬처(윤여탁 외) 교과서 108-109쪽 : 사동과 피동 ···· 63

<그림11> 미래엔컬처(윤여탁 외) 교과서 91쪽 : 품사 ····· 65

<그림12> 미래엔컬처(윤여탁 외) 교과서 145쪽 : 관용 표현 ····· 66

Abstract

An Analysis of Korean Textbooks under the Revised Curriculum

: the grammar of the 7th grade

Mun Hui Jung
Advisor : Prof. Choe, Jae-Hee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basic guideline in class is the curriculum. The curriculum is delivered to the students by the main material, textbooks, The textbooks are closely connected to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hey hold the vital position among many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Textbooks are just one of many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theoretically, but when we consider that most lessons at school are textbook-oriented, we can't deny the influence of them. Therefore we need to analyze how the textbooks reflect national curriculum in them, how they achieve educational goals and how the units and hierarchy of contents are arranged,

There have been researches on grammar of Revised curriculum. However, the researches so far achieved have been usually under the view of abstract and broad view, so they can't solve all the questions asked on-the-spot education setting which has to reflect the current curriculum directly. Hereupon, this paper reports on a Analysis of textbooks under 2007 the revised curriculum : the grammar of the 7th gra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the true understanding of 2007

revised curriculum reflected on the textbooks.
Accordingly, this paper tried to get the points of revision of the grammar and analyzed the contents, and then it investigated the resolution for the better grammar part learning understanding the manners of statement, unit hierarchy and the contents of grammar involved in authorized textbooks which reflect the 2007 the revised seventh curriculum.

First of all, in part Ⅱ, this paper analyzed the contents and directions for revision of 2007 the revised curriculum, In part Ⅲ, it investigated the construction and organization of the grammar part of 2007 the revised curriculum, In part Ⅳ, it examined how the grammar parts in the 2007 the revised curriculum were reflected in the textbooks and then analyzed concretely how the units, learning contents, organization and techniques are efficient.

This study suggested some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detailed textbook analysis should be done in advance for the Korean classes in school to be efficient. Second, this study found that the authorized textbooks which reflect 2007 the revised curriculum value the combination and the connection of most parts. Third, the discourse-oriented materials are better than the sentence-oriented ones. And the fourth, we need to make the best use of combinational education in 2007 the revised curriculum.

Through this study, we can find that these attemps have been achieved steadily. From now on, the researches on 2007 the revised curriculum will go on and according to those researches, the discussions on the practical teaching-learning such as the analysis of textbook will be made actively.

제1장 서 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교육을 구성하는 요소는 교사, 학생, 그리고 교육 내용이다. 여기에서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수업 시간의 주교재인 교과서이다. 교과서는 국가 차원의 교육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며, 학습 자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1] 이론상으로는 수많은 학습 자료 중 하나일 뿐이지만 실제 수업 시간이 대부분 교과서 중심 수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과서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의 교육 과정 반영 여부, 교육 목표 달성 여부, 단원의 구성 방식, 내용의 위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보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행한 1종의 교과서를 전국적인 공통 교재로 사용했을 때와는 달리 2010학년도부터 23종의 검정교과서 중 한 가지를 선정하여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교과서 분석 연구의 적기라 판단된다.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는 국어와 생활 국어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영역으로 설정하여 단일 교과서 체제가 아닌 다교과서 체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7차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는 '국어'와 '생활 국어',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서로 독립적인 영역이 아니라 단원별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을 적용한 교과서의 '국어 지식' 영역은 생활 국어에서만 따로 다루었지만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는 문법[2] 영역을 '국어'와 '생활 국어'에 고루 섞어 놓았다.

문법 영역은 교육 내용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한 영역을 학습하

---

1) 허재영(2006), 『국어과 교과서와 교재 지도 연구』, 한국문화사, p.8.

2) 7차 교육과정에서의 '국어지식'이란 명칭이 개정교육과정에서 문법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문법 영역으로 통일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기 전에 그 단원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갖추어야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문법 영역에서 순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한 영역을 학습하기 위해 다른 부수적인 영역의 학습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어 학습자와 교사 모두 문법 영역의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로 인해 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7차 교육 과정에 의해 편찬된 국정 교과서의 문법 단원 배열은 단원과 관련된 선수 학습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연구도 있었다.[3] 그렇기 때문에 7차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들은 모두 문법 영역 교육 내용의 순차성을 고려하고 있는 지 그리고 그 내용이 적절한지를 끊임없이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적절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와 함께 적절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법 영역의 지식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올바른 국어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학생들이 학습하는 국어 구조적인 측면의 지식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기능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고 바른 국어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국어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반영된 검정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게 될 문법 영역의 적절성 및 단원 배열의 순차성을 검토하는 기회가 되며, 학년별 성취 기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는 과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 문법 영역의 개정 방향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반영된 검정 교과서 중 문법 영역의 내용, 단원 배열, 진술 방식을 교과서별로 분석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보다 나은 문법 영역의 학습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

3) 김보름(2008), 「중학교 생활국어 '국어지식'영역의 단원 배열에 대한 고찰」,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1.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고에서는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7학년 국어 교과서 중 문법 영역의 내용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반영된 첫 번째 교과서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교과서에 반영된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는 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에 따른 변화 내용을 이해하는 것 또한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개정 방향과 취지에 맞게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선 2장에서는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및 내용을 분석하고, 3장에서는 특히 개정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내용 구성과 체계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4장은 본고에서 다루는 논의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법 영역의 교육 내용이 교과서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단원들의 구성이나 배열, 학습 내용, 조직, 기술 등이 효율적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와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의 문법 영역 간 내용 체계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비교하여 새롭게 추가되거나 강화된 학습 내용, 개선된 점과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경상남도 마산 지역[4]의 국립 · 공립 · 사립중학교 25곳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학교에서 선정한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혀 둔다. 마산 지역의 7학년 국어 교과서 선정 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주)천재교육(저자 : 박영목 외)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교학사(저자 : 김형철 외) 교과서를 채택한 학

4) 2010년 7월 1일자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 마산회원구로 변경되었음.

교 7곳, (주)천재교육(저자 : 김대행 외)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4곳, (주)천재교육(저자 : 노미숙 외)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3곳, (주)지학사(저자 : 이용남 외) 교과서와 미래엔컬처(저자 : 윤여탁 외)를 채택한 학교가 각각 1곳으로 그 뒤를 이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1> 마산 지역의 7학년 국어 교과서 선정 현황

분류	학교명	교과서(저자)	비고
국·공립	광려중학교	교학사(김형철)	
	구남중-구산분교장	천재(박영목)	
	구남중학교	천재(박영목)	
	구암여자중학교	천재(박영목)	
	구암중	천재(박영목)	
	내서중	천재(노미숙)	
	마산동중	천재(김대행)	
	마산서중	지학사(이용남)	
	마산여중	천재(김대행)	
	삼계중	천재(박영목)	
	양덕여자중학교	교학사(김형철)	
	마산중	천재(김대행)	
	양덕중	교학사(김형철)	
	진전중	천재(박영목)	
	합포여자중학교	천재(박영목)	
	합포중	천재(박영목)	
	해운중	천재(김대행)	
	호계중	천재(박영목)	
사립	무학여중	교학사(김형철)	
	마산삼진중	교학사(김형철)	
	의신여중	천재(노미숙)	
	제일여중	미래엔컬처(윤여탁)	
	중앙중	교학사(김형철)	
	성지여중	천재(노미숙)	
	창신중	교학사(김형철)	

1.3. 선행 연구 검토

지금까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지식' 영역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대부분의 논의들은 '국어 지식' 영역에 해당하는 단원들의 문제점을 학년별로 그 단원 내에서만 분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역시 정혜승(2007), 최지현(2007)에 의한 국어과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논의, 문법 교육과정의 방향 및 개선점에 대한 논의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우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중학교 '국어 지식' 영역에 대한 연구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 중에서도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과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중학교 '국어 지식' 영역에 대한 연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허정연(2002)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7학년 생활 국어의 문법 단원 내용의 구성과 상위 내용, 하위 내용의 논리적 체계, 수업 내용의 순서와 방법, 단원 배열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논리적 체계에 따른 단원의 재배열을 주장한 점에 의의가 있지만 연구 범위가 7학년 교과서 두 단원뿐이라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

이병훈(2003)은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중학교 '국어 지식' 단원을 지식 · 사용 · 태도 영역으로 분류하여 '사용' 영역이지만 '지식' 영역으로 바뀌어야 할 단원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국어 지식' 영역의 전 단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점은 기본의 연구 범위와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서성희(2003)는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의 국어 지식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 7차 교육과정의 국어 지식 내용이 6차보다 개선된 점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장주희(2005)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국어 지식' 영역 단원을 대상으로 단원 구성 체계가 학습 효과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 내용의 배열 순서, 학습 내용의 적

절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학습 내용의 배열 순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정예지(2006)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생활 국어 교과서 중 '국어 지식' 영역 단원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 내용의 반영 여부, 학습 활동 내용의 적합성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둘째,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송현정(2006)은 2005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한 교육과정 시안을 바탕으로 개정의 기본 방향을 밝히고 그 중 '문법 영역'의 내용을 영역, 체계, 수준 등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2007년에 고시된 공식 교육과정과는 차이가 있다.

이관규(2007)는 7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국어 문법 영역의 특징을 연구하고 있다. 7차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과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을 성격, 목표, 학습 위계, 내용 요소 범주, 평가, 방법 별로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맥락' 범주를 지적하며 '맥락' 보다는 '태도'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임칠성(2007)은 2007년 개정된 심화 선택 과목 문법 교육과정을 개정 배경과 함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은경(2009)은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 내용을 분석하고 7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그 특징과 달라진 내용 등을 기술하였으며,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 내 문법 영역을 교육과정 문법 영역과의 비교를 통해 그 변화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국어 지식' 영역의 연구는 꾸준히 있어 왔다. 또한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육 방향과 과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매우 의미가 있는 논의였고, 문법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 측면에서의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틀 속의 내용이 많았고, 직접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수업을 해야 하는 학교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이 어떤 목적 때문에 선정되고 배열되

었는지 교사가 완전하게 인지하고 있어야만 학생들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교수 · 학습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의들보다 구체적으로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 학습 내용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선정되어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7학년 개정 국어 교과서의 문법 영역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인 문법 영역의 학습을 위한 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제2장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개관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그 속에 7차 교육과정의 수정 · 보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학습 내용이나 배열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내용 체계 자체 등에 변화가 나타났으므로 그 변화의 정도가 작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중점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교육부가 제시한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5)]

첫째,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정책에 따른 변화 측면에서 보면, 7차 교육과정 고시 후 10년 동안 국어 교육 학문 공동체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축적하였고, 현장 교사 및 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축적한 학문적 성과, 국어 교육의 안팎에서 제기된 다양한 비판과 요구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둘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이다. 그동안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문제 제기는 수준별 교육내용을 국가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학습자의 수준이 다양한 현실에서 이를 '기본', '보충', '심화' 등 몇 가지로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수준별 교육과정의

5)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7년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pp.3-7.

비판을 수용하여 학교 및 교사 중심의 수준별 수업으로 전환하였다.

셋째,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매체언어'의 수용 요구 측면이다. 국어 교육에서 매체의 수용은 교수 · 학습 활동에서 매체를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즉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매체 담화 · 글의 비판적 수용과 창의적 생산 능력 신장을 국어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매체 특성에 대한 이해는 매체에 따른 언어 사용 방식, 소통 주체 간 상호 작용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매체 담화 ·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 · 생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에 따라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 내용이 구성되었다.

넷째,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적 문제 개선 측면이다. 그 동안 국어과 교육과정이 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2008:7)에 따르면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적 문제를 첫째,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 요소 중심의 교육 내용 선정, 둘째, 실제와 내용 간, 내용 간의 분절성, 셋째,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에 대한 관심 부족, 넷째, 교육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연계성 부족, 다섯째,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하고 원활한 소통을 돕는 정보의 부족으로 정리하고 있다.

2.2.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중점 사항

2.2.1.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중심의 국어 교육 지향

개정 국어과 교육과학기술부(2008:11)를 보면 개별적 · 독립적 · 탈맥락적인 지식, 기능의 학습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 속에서 학습자의 국어 능력이 신장된다고 보고, 교육 내용을 '실제'범주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즉, 실제[6] 범주(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현)를

상위 범주로, 내용[7] 요소 범주(지식, 기능, 맥락)를 하위 범주로 설정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상위 범주인 실제 범주는 담화와 글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 해당하는 범주로서 하위 범주인 내용 요소 범주를 규정하고 통어하는 범주로서 기능한다. 학습자가 국어 수업을 통하여 도달해야 할 '성취 기준'은 실제 범주에서 선정하였으며,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익혀야 할 '내용 요소의 예'는 내용 요소 범주에서 선정하였다.

2.2.2. 실제와 내용 요소 간의 관련성, 내용 요소 간의 통합성 강조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실제와 내용 요소 간의 관련성, 내용 요소 간의 통합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먼저,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실제' 범주를 1차 조직자로, 담화와 글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활동에서 요구되는 '내용 요소'를 2차 조직자로 설정하여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강화하였다. 예컨대, 성취 기준이 설명문의 수용과 관련되어 있다면, 내용 요소는 해당 설명문을 수용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식, 기능, 맥락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특정 담화와 글의 수용과 생산은 특정 지식, 기능을 요구한다는 관점을 수용한 결과이다.

한편, 내용 요소 간의 통합과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7차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본질, 원리, 태도가 독립적 · 분절적으로 인식되고 학습된 이유는 이들의 통합과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실제'를 중심에 놓음으로써, 구체적인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 속에서 다양한 지식, 기능, 맥락이 서로 통합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6)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 영역의 내용 체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로 국어 교육이 국어 생활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나온 개념이다. 즉, 국어 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 국어 교육이 유의미해지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7)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요구되는 세부적인 지식, 기능, 맥락을 의미한다. 즉 학년별 학습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2.3. 학교 수준에서의 수준별 교육 지향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규정하는 주체를 국가가 아닌 단위 학교로 설정하였다. 학습자의 수준이 학습자의 수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학습자의 수준을 국가에서 몇 가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 차이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주체는 학습자와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는 교사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수준을 해석하는 권한과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적절한 교육적 처방을 하는 권한을 교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수준별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기본】과 【심화】로 구분하여 제시한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를 삭제함으로써 학교 단위, 교사 단위의 수준별 학습을 기획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담화와 글의 내용, 범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년별 · 영역별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수준별 수업을 위한 사항을 '4. 교수 · 학습 방법'항의 '교수 · 학습 계획', '교수 · 학습 운용'에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2.2.4. 담화와 글의 생산, 수용 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의 강조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 선정 범주에 지식, 기능 외에 맥락 범주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행위의 정확성, 적절성, 윤리성 등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맥락은 상황 맥락과 사회 · 문화적 맥락을 포함한다. 상황 맥락은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맥락으로 언어 행위 주체(화자 · 필자, 청자 · 독자), 주제, 목적 등을 포함하고, 사회 · 문화적 맥락은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맥락으로 역사적 · 사회적 상황, 이데올로기, 공동체의 가치 · 신념

등을 포함한다.

맥락은 언어 공동체에서 형성된 언어 규범 · 관습과 언어 행위자의 개별적인 언어 행위가 만나는 공간으로 언어 행위의 구심력과 원심력이 만나고 경쟁하는 공간이다. 맥락 범주의 설정은 언어 활동에 시간성, 공간성을 부여함으로써 언어 활동을 역사적 맥락, 사회적 맥락에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동안 국어과 교육과정은 탈맥락적인 지식, 기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신의 언어 행위를 역사, 문화, 사회라는 넓은 맥락에서 사고하고 성찰하는 길을 열어주지 못하였다. 모국어 사용자는 정확하고 유창한 언어 활동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언어 활동을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성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을 국어과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2.2.5. 교육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연계성 강화

교육 내용의 타당성을 사회적 요구, 학문적 요구, 학습자 요구에 근거하여 분석하여 새로운 교육 내용을 추가하거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타당성을 강화하였다. 교육 내용의 적정성(내용의 많고 적음, 내용 수준의 높고 낮음)을 전체 수업 시수, 중복 여부, 내용의 층위, 학습자의 수준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7차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을 유지 · 삭제 · 조정(학년 간, 학교급 간 이동) · 추가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교육 내용의 학년 간, 학교급 간의 수직성 위계성, 학년 내의 수평적 관련성에 근거하여 분석하여 수정 · 보완함으로써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년 내 영역 간의 연계성을 담화와 글의 차원에서 강화하고자 하였다.

2.2.6.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통성의 강화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가 도달해야할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였으며, 이러한 성취 기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설정한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내용 요소의 예' 항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하나의 개별적인 담화 또는 글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수준과 범위를 지닌 담화 또는 글을 국어 수업에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화의 수준과 범위' 항목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세부적인 지식, 기능, 맥락을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내용 요소의 예' 항목에 제시하였다.

한편, 교육과정의 구체성이 강화될수록 교육과정 실행 주체의 재량권과 해석권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담화의 수준과 범위', '내용 요소의 예'를 제시하여 소통성을 높이되, 이들을 지침의 성격이 아닌 하나의 '예'로 제시하였다. 즉,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한 '담화의 수준과 범위', '내용 요소의 예'는 국어과 교육과정 실행 주체에 의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석되고 추가 · 변형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2.2.7.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매체' 관련 내용의 확대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사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다. 다매체 시대로 일컬어지는 언어 환경의 변화는 국어과뿐만 아니라 많은 교과의 교육 내용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매체 언어 역시 기호라는 점에서 국어과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즉 담화와 글의 수용과 생산 능력 신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 국어과에서 매체 담화 · 글의 수용과 생산을 국어과의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매체 담화 · 글의 창의적, 비판적 수용을 강조함으로써 국어 교육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3장에서는 7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개정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특징과 변화 모습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3장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 분석

3.1.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 문법 영역의 개정 사항

7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법 영역의 개정 사항을 이관규(2007:54)에 따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1. 문법 영역 명칭의 정립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가 '국어 능력' 신장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7차의 '국어 지식' 영역 명칭을 그 정체성을 뚜렷이 보여 주는 문법으로 정립하면서 더불어 문법 교육이 국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것이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과정 해설서(2008:18)를 보면 7차 교육과정에서 사용하였던 '국어 지식'이란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고 '지식'이라는 단어가 '쓰임과 활용'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어과의 목표를 진술하는 데서 보다시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도 진일보했다고 평가된다. 7차 때의 '언어'라는 표현이 모두 '국어'로 바뀌었는데, 이는 국어과에서는 국어 교육을 해야지 언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전제가 명문화되었음을 의미한다.

3.1.2. 내용 체계의 변화

개정 교육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은 내용 체계이다. 7차 때의 '국어의 본질, 국어의 이해와 탐구, 국어에 대한 태도, 국어의 규범과 적용'이 '국어 사용의 실제, 지식[8], 탐구, 맥락[9]'으로 바뀌었다.

---

8)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요구되는 형식적, 본질적, 명제적 지식을 의미하며 하위 요소

<표2> 7차 교육과정 ‘국어 지식’ 영역 내용 체계

• 국어의 본질 - 언어의 특성 - 국어의 특질 - 국어의 변천	• 국어의 이해와 탐구 - 음운 - 낱말 - 어휘 - 문장 - 의미 - 담화	• 국어에 대한 태도 - 동기 - 흥미 - 습관 - 가치
• 국어의 규범과 적용 - 표준어와 표준 발음 - 맞춤법 - 문법		

<표3> 개정 교육과정 문법 영역 내용 체계

국어 사용의 실제 -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 / 글	
지 식 ◦ 언어의 본질 ◦ 국어의 특질 ◦ 국어의 역사 ◦ 국어의 규범	탐 구 ◦ 관찰과 분석 ◦ 설명과 일반화 ◦ 판단과 적용
맥 락 ◦ 국어 의식 ◦ 국어 생활 문화	

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은 소통의 본질, 담화 특성, 매체 특성을 문법 영역은 언어의 본질, 국어의 특질, 국어의 역사, 국어의 규범을 문학 영역은 문학의 본질과 속성, 문학의 양식과 갈래, 한국 문학의 역사를 포함한다.

9)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문화적 배경을 의미한다. 하위 요소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은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을, 문법 영역은 국어 의식, 국어 생활 문화를, 문학 영역은 수용·생산의 주체,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을 포함한다.

위의 <표2>와 <표3>은 각각 7차 교육과정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와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의 문법 영역 내용 체계이다. 이를 비교해 보면, '태도' 영역이 삭제되었고 '맥락'이라는 범주가 생겼으며, '실제'라는 범주가 가장 상위에 위치함으로써 실제 국어 생활의 언어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법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 7차 교육과정 국어지식 영역에서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본질'이나 '원리'에 해당하는 문법적 지식에 단순히 '-하는 태도를 갖는다.' 라는 문장만을 붙여 학습 내용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정 교육과정은 내용 체계에서 '태도'를 삭제하여 태도 형성이 교육 내용 자체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맥락'과 '실제'를 내용 체계에서 강조한다는 것은 이번 개정 교육과정이 실제 국어 생활에 유용한 살아있는 문법 교육을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3.1.3. 문법 영역 교육 방법

통합적 교수 학습 방법이 가장 주목된다. 이는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추구하면서 나온 것으로 바람직한 국어 생활에 이바지하는 문법 교육이 되도록 지향한다는 것이다. 7차 때와 마찬가지로 학습자 중심의 탐구 학습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목적을 같이 한다.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문법 영역세서도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선택적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7차 교육과정 문법 영역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문법 영역 교육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7차 교육과정 문법 영역 교육 방법

가. 교수 · 학습 계획

나. 교수 · 학습 방법

· 영역별 학습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 · 학습을 전개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중략>

· 강의, 토의, 토론, 현장 학습, 협동 학습 등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에 적합한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교수 · 학습을 전개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중략>

· 본질, 원리, 태도의 학습 내용이 실제의 국어 사용과 연관되도록 교수 · 학습을 전개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중략>

(2)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문법 영역 교육 방법

가. 교수 · 학습 계획의 일부

·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영역 간, 영역 내의 학습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하기 위한 교수 · 학습 방안을 계획한다.<중략>

· 문법이나 문학과 관련된 담화 또는 글과 문학 작품을 읽거나 듣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문법 및 문학 영역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을 **통합**한다.

· 매체 관련 내용 요소를 지도할 때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과의 **통합**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나. 교수 · 학습 계획의 일부

· 둘 이상의 영역을 통합하여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의 학습 활동이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 영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통합적 교수 · 학습의 효율성을 높인다.

· 학습자가 한 영역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른 영역에 적용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 학습 요소의 통합 취지에 알맞은 방법으로 교수 · 학습을 전개한다.

(1)의 내용과 (2)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통합 관련 내용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데 반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역 간 및 학습 요소간의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합적인 문법 교육을 지향하는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은 (2)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이라 하면 다양한 영역 간 및 학습 요소 간의 통합을 의미하는 데 그 통합 방식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문법 영역 중심으로 통합될 때와 문법 영역이 보조적으로 통합 될 때의 교수 · 학습 방법의 차이는 분명할 것이다.

3.2. 문법 영역의 학습 내용

3.2.1. 담화 교육 강조

개정 교육과정 문법 영역 학습 내용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담화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담화는 문장보다 더 큰 언어 단위를 일컫는 용어이다.[10] 문법 영역에서는 7차 교육과정부터 담화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4>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담화 학습 내용

(7-국-6) 담화의 구성을 안다.
(8-국-6)발화의 기능을 안다.
(10-국-5)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안다.
(8-듣-4) 들은 내용의 응집성을 판단한다.
(8-말-3) 응집성 있게 내용을 조직하여 말한다.
(8-읽-5) 읽은 글의 일관성을 평가한다.
(8-쓰-3) 일관성 있게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8-읽-2) 내용과 내용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표지에 유의하여 글을 읽는다.

10) 임지룡 · 이은규 · 김종록 · 송창선 · 황미향 · 이문규 · 최웅환(2005),『학교문법과 문법교육』, 박이정, p.347.

<표5> 개정 교육과정 문법 영역에 제시된 담화 학습 내용

학년	성취기준	내용 요소의 예
5학년	(1) 반언어적 표현의 특성을 알고 의사소통에서의 역할을 이해한다.	· 반언어적 표현의 개념 이해하기 · 반언어적 표현이 의사소통에서 하는 역할 이해하기 · 반언어적 표현을 의사소통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5학년	(4) 말하는 이, 듣는 이, 상황 , 매체 등에 따라 언어 사용 방식이 달라짐을 안다.	· 의사소통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 알기 · 말하는 이, 듣는 이, 상황, 매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 이해하기 · 의사소통 상황과 언어 사용 방식의 관계 파악하기
7학년	(5) 지시어가 글의 구조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지시어의 개념 이해하기 · 담화 또는 글에서 지시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기 · 지시어가 담화 또는 글 전체 구조에 끼치는 의미 관계 파악하기
8학년	(5)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상황 맥락이 관여함을 안다.	· 상황 맥락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 · 상황 맥락이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9학년	(4) 담화 또는 글 구성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 통일성과 응집성의 개념 이해하기 · 담화 또는 글에서 통일성과 응집성 판단하기

<표5>를 보면 7차 교육과정에서 말하기 · 듣기 영역에 속했던 내용이 문법 영역에 제시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7차 교육과정의 각 영역에 흩어져 있던 담화 구성 기본 개념들을 문법 영역에 모아서 제시하고 말

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는 실제 담화 자료를 중심으로 활동 위주의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표현 · 이해 영역에서 실제적 담화 상황을 학습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법 영역에서 담화의 기본 내용을 충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2.2. 학년별 문법 학습 내용

개정 교육과정 문법 영역 학습 내용 배열을 살펴보는 것은 난이도 측면에서의 해당 학년의 학습 내용으로서의 적절성, 다른 영역간의 횡적 연계성, 문법 영역 내 위계성 등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은경(2009:32)에 따라 학년별 문법 내용 항목을 알아보고,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학습 내용의 위계적 배열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국어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 내용의 위계적 배열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어의 구조는 음운-단어-문장-담화/글로 제시할 수 있다. 이 국어의 구조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중학교에서부터 제시되고 있다. 7학년부터 국어학적 지식을 통해 설명되는 국어의 단위가 학습내용으로 제시되는데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언어 단위가 학년마다 분산 배열되고 있다.

먼저 <표6>을 통해 국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학생들이 학습하게 될 문법 내용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6>은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내용 항목을 학년별로 정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7차 때와 큰 차이는 없지만 몇몇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관규(2004:69)에 따르면, 7차 교육과정 때 현장 학교의 교사들의 불만사항으로 가장 많았던 점이 교수 학습 내용의 위계성이다. 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던 것이 품사 항목을 배우기 전에 단어 형성법을 학습한다는 점이었는데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품사 항목을 7학년에 학습하고 단어의 종류와 형성법을 8학년에 학습하게 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위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여전히 아쉬운 점이 여럿 존재하지만 이런 개선점 등은 매우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11)]

<표6> 국어과 국민 공통 교육과정 내 문법의 학년별 문법 내용 항목

학년 / 내용	1	2	3	4	5	6	7	8	9	10
음운	자음 모음				장단				음운 체계	음운 변동 (규칙)
단어			용언 기본형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품사	형태소 단어의 종류		
문장			종결 표현	높임 문장 성분	시간 표현	연결 호응	피사동		서술어 자릿수 문장의 짜임	
의미		의미 관계	동음어 다의어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		관용 표현	문장의 중의성		
담화					의사 소통		지시어	맥락 구성 요소	담화 구성 개념	장면 표현 방식
규범	표기 문장 부호	표준 발음법	사전 찾기	표준어 방언						로마자 외래어 표기법
국어사										국어 역사
언어 한글						한글의 가치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남북한 언어	문화적 특성 세계화	한글 창제 원리

11) 이와 관련하여 이관규(2007:75)를 참고하면 국어가 교착어로서 조사와 어미가 발달해 있다는 것과 국어의 기본 어순이 주어-목적어-서술어-라는 것이 빠져있다는 점, '한글'에 대한 이야기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빠져 있다는 점, 문법 내용 항목들이 10년 동안 한 번씩만 제시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국어의 구조를 바탕으로 중학교부터의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 학습 내용 배열 양상을 정리하면 <표7>와 같다.

<표7>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 학습 내용 배열 양상

국어의 구조		음운	단어	문장	담화/글
교육과정	학년				
7차 교육 과정	7학년	음절의 개념	형태소의 개념 은어, 전문어, 비속어, 유행어 동음어, 다의어		담화의 구성
	8학년	음운체계	국어의 조어법		
	9학년	음운변동규칙	품사 분류 기준과 품사의 특성	문장성분의 특성과 문장 구성원리 문장의 중의성	
	10학년			문장의 짜임새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
개정 교육 과정	7학년		품사 관용 표현	사동과 피동	지시어가 글의 구조나 의미에 미치는 영향
	8학년		어휘사용양상 단어형성법	문장의 여러 가지 해석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상황 맥락의 관여
	9학년	음운체계		문장의 짜임새	담화 또는 글 구성의 기본 개념
	10학년	음운규칙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

<표7>를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 학습 내용의 배열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음운은 9학년과 10학년, 품사는 7학년에 있으며, 담화와 문장 차원의 내용은 거의 매 학년마다 제시되어 있다. 7차 교육과정을 보면 담화의 기본 개념은 7학년, 음운은 8학년, 품사와 문장은 9학년에 처음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7차 교육과정은 음운과 형태소를 다 학습한 후 문장을 배우게 하여 작은 구조에서 큰 구조로의 위계를 보이지만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음운과 단어는 7차와는 반대로 배열하고 문장과 담화의 학습 내용을 매 학년에 제시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본고에서 필자는 문장과 담화 차원의 학습이 음운과 단어를 모두 학습하고 난 뒤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학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 배열 양상에 의문이 남는 부분이라 하겠다.

국어의 구조를 바탕으로 한 학습 내용 역시 의문을 갖게 하는 점이 존재한다. 이는 필자가 7학년 문법 영역의 품사 부분을 학습시킬 때 느낀 문제점이기도 하다. <표7>를 보면 7학년에서 품사를 학습하고 9학년에서 문장의 짜임새를 학습하게 된다. 품사와 문장은 서로 인접한 거리에 배열되어야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품사를 가르칠 때 예를 들어 관형사와 부사를 설명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관형사와 부사는 수식언으로서 다른 성분을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 예를 문장으로 보여 주게 되고 문장 속에서의 그 역할을 설명하다 보면 관형어, 부사어와 겹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품사는 문장 속에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고 품사와 문장 성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계의 성격이 강한 두 항목을 7학년과 9학년에 각각 배열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요약하면 개정 교육과정 문법 영역에서는 효과적인 담화를 위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학습 내용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의 구조적 측면에서 학습 내용을 배열하는 데 있어

서는 품사와 형태소 사이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을지 몰라도 품사와 문장 사이의 연계성을 무시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학습자의 학습 효율을 고려하여 품사와 문장의 구성을 다시 배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며 후에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문제이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분석보다는 다음 장에서 다루어지는 해당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의 분석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이상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그럼 다음 4장에서는 이러한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의 변화와 내용을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7학년 교과서의 문법 영역 분석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 7학년 문법 영역의 단원 분석 및 문제점

4.1. 7학년 문법 영역의 내용

4.1.1. 7학년 문법 영역 성취 기준과 내용

본고에서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7학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는 것은 앞서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7학년에 학습해야 할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과 각 성취 기준별 내용 요소의 예를 교육과정해설서(2008:42)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8> 7학년 교육과정 문법 영역 성취 기준

•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 •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특성을 이해한다. • 표현 의도에 따라서 사동 · 피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 • 지시어가 글의 구조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7-문법-(1)】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언어의 기능과 특성 이해하기

◦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 비교하기

◦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사용하기

이 성취 기준은 다양한 매체의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점을 이해하여 매체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특성 및 매체가 언어 사용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지도하되, 특히 매체 언어 사용 방식이 갖는 특성을 국어 생활 문화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 채팅이나 인터넷 게시판의 글쓰기, 문자 메시지 등의 언어 사용 방식이 갖는 독특한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컨대 상호작용성이 강한 인터넷이나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에 쓰이는 문자 언어는 책에 쓰이는 문자 언어에 비해 구어적 특징을 지니며, 이모티콘과 같은 시각적 기호는 면대면 상황에 쓰이는 비언어적 · 반언어적 표현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컴퓨터와 휴대 전화 같은 새로운 매체의 발명(구체적으로는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 등)이 국어 생활 문화사의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되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이분법만으로는 그 언어 사용 방식의 특징을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언어 사용 방식을 창조해 냈음을 이해하고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7-문법-(2)】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속담, 명언, 관용어 등의 개념 이해하기
- 관용 표현 사용의 효과를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기
- 관용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표현 의도에 맞게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표현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하도록 지도하되, 국어 생활 문화의 특성과 관용 표현의 관계를 이해하고 관용 표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속담, 명언, 관용어 등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것들이 담화나 글에서 어떤 표현의 효과를 드러내는지 분석 및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관용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때 표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지 분석하여 관용 표현을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양한 관용 표현에 접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자료를 제시하고 관용 표현과 국어 생활 문화의 특성을 관련시켜 지도한다. 특히 관용 표현에 담겨 있는 국어 생활 문화의 특성을 통해 한국인의 삶과 의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관용 표현을 창조적으로 변용하는 활동도 행할 수 있다. 특히 패러디 등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현재의 국어 생활 문화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거나 국어 문화에 즐거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7-문법-(3)】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특성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품사의 개념 이해하기
- 품사의 분류 기준 발견하기
- 품사 분류하기
- 품사의 종류와 특성 설명하기

이 성취 기준은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특성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어의 특징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 설정하였다.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특성을 탐구해 가는 과정을 통해 수많은 단어들을 일정한 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을 깨달아, 어휘 더 나아가 국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양한 종류의 단어들을 제시한 뒤 각 단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단어들을 일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무리지어 나눌 수 있음을 깨닫도록 지도한다. 학습자들이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을 탐구해 낼 수 있

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발견해 가는 과정을 통해 어휘 더 나아가 국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수 · 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문장 성분과 품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이 둘을 비교하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7-문법-(4)】 표현 의도에 따라서 사동 · 피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

【내용 요소의 예】

◦ 사동 · 피동 표현의 개념 이해하기

◦ 사동 · 피동 표현에 따라 의미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기

◦ 사동 ·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심리적 · 사회적 특성 이해하기

이 성취 기준은 사동 · 피동 표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이해하고 현재의 국어 생활 문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사동 ·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미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문맥적 의미, 필자의 심리적 태도, 사회 문화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사동 · 피동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국어 생활 문화와 사동 · 피동 표현 사용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아 비판적 국어 의식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사동 · 피동 표현을 주동 · 능동 표현과 비교하여 그 개념을 이해하게 한다. 사동 · 피동 표현을 사용한 담화와 글의 의미를 문맥적 · 심리적 ·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분석하고 해석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사동 · 피동 표현을 사용할 때에 의미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주동 · 능동 표현과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구체적인 언어 자료 각각을 대상으로 사동 · 피동 표현을 사용한 심리적 · 사회적 특성을 유추해 보도록 지도한다. 특히 사동 · 피동 표현이 꼭 필요한 경우이거나 사동 · 피동 표현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데에도 사동 ·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용례를 대상으로 왜 사동 · 피동 표현을 사용했는지 생각해보도록 지도한다.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사설 등에서는 일부러 사동 ·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행위의 주체를 감추거나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룬 글, 법조문, 경고문, 안내문, 연설문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사동 · 피동 표현을 다수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담화나 글들을 대상으로 사동 · 피동 표현이 갖는 의미와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사동 · 피동 표현을 남발하는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의 국어 생활 문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교수 · 학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7-문법-(5)】 지시어가 글의 구조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지시어의 개념 이해하기

◦ 담화 또는 글에서 지시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기

◦ 지시어가 담화 또는 글 전체 구조에 끼치는 의미 관계 파악하기

이 성취 기준은 지시어가 담화 또는 글 전체 구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지시어에 유의하여 담화 또는 글의 의미를 꼼꼼하게 이해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지시어의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지시어와 담화 또는 글의 구조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시어에는 '이, 그 저, 이것, 그것, 저것, 여기, 거기, 저기,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지시어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이 전제되어야만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담화나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담화나 글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명료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글에서는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섬세하게 분석해 내어야만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시어의 개념을 구체적인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시어가 다수 사용된 담화 또는 글 한 편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지시어가 담화 또는 글 전체 구조와 의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탐구해 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4.1.2. 7학년 문법 영역의 언어 자료

<표9>은 7학년 문법의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이다. 이러한 언어 자료가 제시된 것은 2장에서 살펴 본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텍스트 중심'의 가치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선, 구체적인 문법 범주를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고 실제 교육 내용은 그 문법 범주의 개념 등의 기본 내용을 가르친 후 이것이 구체적인 텍스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관찰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표9> 7학년 문법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사용된 다양한 매체 언어 자료
• 속담, 명언, 관용어 등이 들어 있는 언어 자료
• 품사가 다른 단어가 들어 있는 언어 자료
• 사동 · 피동 표현에 의해 의미 해석 양상이 달라지는 언어 자료
• 여러 가지 지시어가 사용된 언어 자료

문법 범주별 학습도 중요하지만 실제 텍스트를 통해 여러 문법 범주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에 대한 탐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문법 범주의 특성을 탐구하는 활동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단순히 학습 자료를 '문장' 단위로 제공했는지 '텍스트' 단위로 제공했는지의 문제는 아니다.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법이 어떻게 작용해야 표현 효과를 갖는지 그 상황과 언어의 관련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표9>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가 교수 ·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텍스트'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즉, 그 성취 기준이 담겨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라는 추상적인 수준과 범위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이 내세우고 있는 '텍스트' 중심의 실현은 이를 반영할 교과서나 교사의 역할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다음 절에서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과 언어 자료 등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4.2. 7학년 국어 교과서 문법 영역 분석

문법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것은 결국 문법 교과서를 통해서이다. 문법 교과서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교육과정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직접적인 도구이다. 문법 영역을 공부한 학생들이 그 지식의 습득을 통해 국어 능력의 향상을 경험했다거나 국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인식은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관규 2004:70). 이러한 문법 교육의 한계가 나타난 것은 지금까지 문법 교과서의 부적절한 내용 구성과 기술 방식에 그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검정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어 쓰이고 있다. 다음 (3)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검정 기준(교육인적자원부 2007:10) 중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이다.

(3)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검정 기준

Ⅰ. 교육과정의 준수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격, 목표, 내용, 교수 · 학습 방법 및 평가를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이는 즉 교과서 편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교육과정 준수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검정을 통과한 23종의 국어 교과서 역시 모두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국어과 교육 내용 중에는 그에 대한 관점과 견해의 차이가 현저한 부분이 있어 교수자와 학습자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교과서마다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마산 지역에서 채택된 7학년 국어 교과서의 문법 영역 내용과 구성 방식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나름대로 그 해결 방안과 바람직한 문법 교과서의 조건에 대해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4) 교과서 내용 선정 시 유의 사항 - 문법 영역

가. 국어 교과서 문법 영역의 내용은 실제 국어 사용 맥락에서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나. 지식, 탐구, 맥락 각 내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내용을 선정한다.

다. 지식과 탐구의 내용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심화된 것이 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라. 국어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등의 각 언어 단위가 골고루 다루어지도록 하되,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마. 언어의 본질은 언어의 기호성, 사회성 등의 특성, 언어의 다양한 기능 등을 통하여 국어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바. 국어의 특질은 영어나 일본어 등의 외국어와 구별되는 국어의 음운론적 특성, 형태론적 특성, 통사론적 특성, 표현론적 특성 등을 내용으로 하여 국어 학습은 물론 외국어 학습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

사. 국어의 역사는 학계에서 통설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시대 구분 방법에 의해 시대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각 시기 국어의 특성을 개략적으로 다루되, 국어 교과서 내의 고전 작품의 정확한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

아. 국어의 규범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의 4대 규범 가운데 학생들의 국어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자. 관찰과 분석은 학생들의 실제 국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상을 대상으로 하되, 학생의 수준에서 충분히 분석 가능한 내용을 선정한다.

차. 설명과 일반화는 귀납과 연역의 방법에 의해 충분히 수행 가능한 것이 되도록 하되,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한다.

카. 판단과 적용은 국어의 질서를 알고 적용해 봄으로써 정확하고 올바른 국어 생활이 가능할 수 있음을 학생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타. 국어 의식은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 한글의 우수성 등을 통해 국어의 소중함을 알고 국어와 국어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식을 지닐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파. 국어 생활 문화는 국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어 생활의 다양한 측면들이 국어 생활 문화를 이루는 만큼 국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국어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선정한다.

(5) 제재 선정 시 유의 사항 - 문법 영역

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의 형성에 부합하고 문법 영역의 목표에 도달하는 데 적합한 내용을 선정한다.

나. 지역, 성, 계층, 직업, 종교 등의 측면에서 편견을 낳을 수 있는 내용을 피하여 제시한다.

다. 다루어지는 설명이나 예문 등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한국인의 국어 생활 속에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가능한 한 학습자의 수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마. 지나치게 특정 이론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선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학술 용어는 기존 7차 교육과정 문법의 것을 따르도록 한다.

사. 다루는 자료가 특정 국어 생활의 것에 치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제반 국어 생활 양상의 자료 가운데에서 골고루 자료를 선정한다.

위의 (2) 교과서 내용 선정 시 유의 사항(2007:10)[12]을 기준으로 각 출판사별 교과서의 특징을 분석하고 (3) 제재 선정 시 유의 사항(2007:18)[13]과 비교하여 제재글이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지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시켜 주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런 분석 과정을 통해 검정 교과서가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정리할 것이다.[14]

---

12) 교육인적자원부(2007), 『중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기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p.11.

13) 교육인적자원부(2007), 『중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기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p.18.

14) 학교에서의 채택률이 가장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4.2.1. 천재교육(박영목 외)

4.2.1.1.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

이 교과서는 일단 국어와 생활국어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 교과서 역시 국어와 생활국어가 독립된 존재로 분리되어 학습되었는데 대체로 문법 영역은 생활국어에 포함되어 있었다.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대부분의 교과서는 국어와 생활국어를 분리하지 않고 심지어 단원명을 같이 쓰는 경우까지 보이고 있는데 반해 이 교과서는 생활국어에 문법 영역을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고 전부 국어 교과서에만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10> 천재교육(박영목 외) 교과서의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표

소단원명	국어	생활국어
1.매체 언어	1-1 4.매체와의 만남 (1)매체와 언어	
2.지시어· 관용 표현 2-1 관용 표현 2-2 지시어	1-2 5.선인들의 삶과 언어 (3)관용 표현의 이해	
	1-2 2.우리말 탐구 (1)지시어의 개념 (2)지시어의 개념과 역할	
3.품사	1-2 2.우리말 탐구 (1)품사의 분류와 특성	
4.사동과 피동	1-1 5.언어의 세계 (3)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위의 <표10>은 천재교육(박영목 외) 교과서의 중학교 1학년 국어와 생활 국어 교과서의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표이다.

1학기에 매체 언어와 사동과 피동을 학습하고 2학기에 품사와 지시어 · 관용 표

현을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품사와 지시어를 우리말 탐구라는 하나의 대단원으로 묶어 놓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1학기 내용인 사동과 피동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사동과 피동을 나타내 주는 접미사의 개념이 먼저 학습되어야 하는데 우리말의 형태소를 배우기 전에 피동과 사동 표현을 학습시키는 것은 7차 때와 마찬가지로 국어 구조의 위계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동과 사동 단원의 학습 전 형태소, 특히 접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다루어 졌으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다음으로는 각 단원별 내용과 구성 방식을 분석해 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4.2.1.2. 단원별 내용과 구성 방식 분석 및 문제점

▶ 국어 1-1 4. 매체와의 만남 (1)매체와 언어

이 단원은 4개의 제재글을 제시하고 있다. 매체를 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 통신 매체로 분류하여 각각의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와 특성을 학습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인쇄 매체는 신문 기사를 인용하여 그 특징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문 기사의 특징 중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의 구성에 중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인쇄 매체 언어의 장 · 단점을 학습할 시 수업 목표가 분산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맥락에서의 문법 영역 학습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지만 신문 기사의 형식적인 면에 치중하여 학습이 되는 일이 없도록 교수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음성매체는 영상매체와 중복되는 특징이 많기 때문에 영상매체에 포함하여 공통된 특징을 찾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자로 하여금 영상매체와 음성매체 언어 특징 사이의 혼선을 막을 수 있다. 다음으로 4단원 '들어가기'에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 지식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문자언어와 음성언어는 매체 언어에서뿐만 아니라 국

어 영역 전반에 사용되므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특징을 선행적으로 학습한 후에 매체언어의 특징을 학습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언어 학습 전에 언어의 전반적인 기능과 분류를 학습하는 타교과서[15]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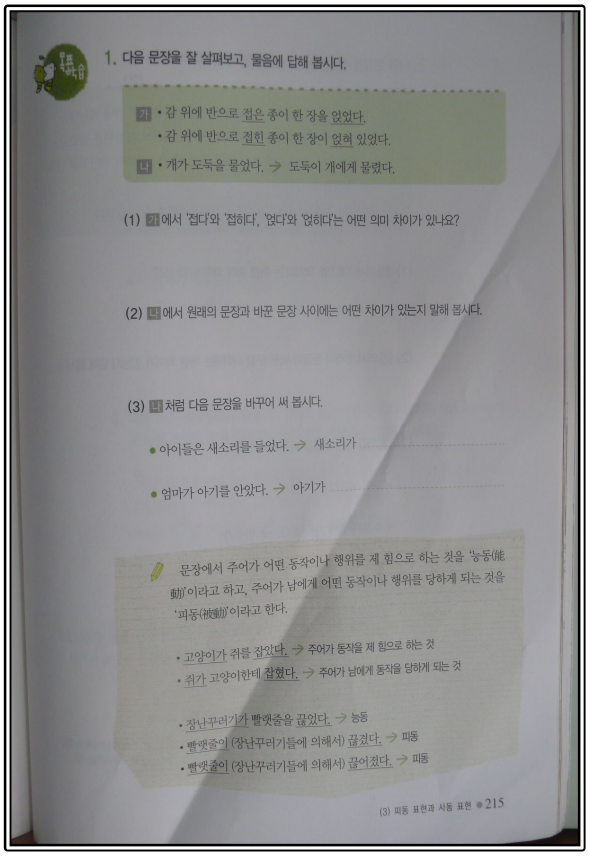
▶ 국어 1-1 5. 언어의 세계 (3)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이 단원에서는 '어머니의 편지와 감'이란 제재글을 통해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을 학습하게 된다. 이 단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이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학습 전에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접해보지 않은 학습자가 시작부터 한 단계 나아가 작품에서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생소한 활동일 것이다. 1차시를 계획하여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글의 갈래가 수필임을 감안하면 내용 학습에 치중될 확률이 더욱 크다. 또한 아래 교과서 215쪽에 제시된 목표학습의 본문 내용 관련 부분은 단지 6문장임을 고려할 때 본문 내용을 통한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학습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본문은 본문 따로, 학습 활동은 또 다른 문장들을 제시하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단원의 경험(정서), 맥락, 문법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좋지만 학습 목표 3가지[16]는 연계성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하나의 제재글에서 감동을 느끼면서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을 공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15) 김형철 외(2010), 『중학교 국어 1』, (주)교학사 및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위의 방식으로 매체 언어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 첫 번째는 '글쓴이의 감동적인 경험에 공감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맥락을 고려하여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표현 의도에 따라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이다.

<그림1> 천재교육(박영목 외) 교과서 215쪽 : 사동과 피동



1. 다음 문장을 잘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가 • 갑 위에 반으로 접은 종이 한 장을 얹었다.
• 갑 위에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얹혀 있었다.

나 • 개가 도둑을 물었다. → 도둑이 개에게 물렸다.

(1) 가 에서 '접다'와 '접히다', '얹다'와 '얹히다'는 어떤 의미 차이가 있나요?

(2) 나 에서 원래의 문장과 바꾼 문장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 봅시다.

(3) 나 처럼 다음 문장을 바꾸어 써 봅시다.

• 아이들은 새소리를 들었다. → 새소리가 .....

•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 아기가 .....

문장에서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제 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能動)'이라고 하고,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被動)'이라고 한다.

•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
• 쥐가 고양이한테 잡혔다. →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

• 장난꾸러기가 빨랫줄을 끊었다. → 능동
• 빨랫줄이 (장난꾸러기들에 의해서) 끊겼다. → 피동
• 빨랫줄이 (장난꾸러기들에 의해서) 끊어졌다. → 피동

(3)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 215

▶ 국어 1-2 2. 우리말 탐구 (2)지시어의 개념과 역할

이 단원은 '(1)지시어의 개념'과 '(2)지시어의 역할'로 나누어져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지시어의 개념과 역할을 알아보고 올바른 국어 문법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단원마다 다양한 예문을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지시어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시키고, 교과서 아래쪽에 내용 정리를 해 놓아 학습자에게 배운 내용을 복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어지는 학습 활동은 내용학습, 목표학습, 통합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이끌어 내고 있는데 활동 모두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단원의 마무리'에서 자기 점검을 통해 선택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시어에 관련된 학습 내용을 내면화시키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어 기존의 7차 교육과정 국정 교과서와 비슷한 구성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 국어 1-2 2. 우리말 탐구 (1)품사의 분류와 특성

대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학습자 스스로 문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점검하고 문법 이해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런 점검 과정 후 품사에 대해 학습하면 문법에 대한 거부감도 줄일 수 있고 동기 유발도 될 것이다. 소단원은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개념을 정립한 후 학습자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학습자가 문법 개념을 얼마나 명확히 이해했고 본인의 것으로 내면화했는가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이어지는 학습활동에서도 내용 학습, 목표 학습, 통합 학습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품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적용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국어 1-2 5. 선인들의 삶과 언어 (3)관용 표현의 이해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관용 표현의 의미와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관용 표현을 속담, 관용구, 명언, 고사성어로 분류하고 있는데, 관용 표현의 정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고, 속담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항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4가지 항목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습활동의 내용 학습, 목표 학습에 명언이나 고사성어 관련 학습이 빠져 있고 이 내용이 통합 학습에 갑자기 제시되어 기본과 심화 활동의 연계성이 떨어지며, 학습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용 표현을 활용한 빙고 놀이를 하게끔 되어 있어 학생들의 흥미만을 지나치게 고려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관용 표현을 쓰는 것이 선인들의 삶과 언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임을 명확히 제시했으나 그 관용 표현이 속담에 국한되어 있는 점이 아쉽고 관용 표현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여 학습자에게 관용 표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2.2. 교학사(김형철 외)

4.2.2.1.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

이 교과서 역시 앞에서 본 천재교육(박영목 외)교과서처럼 국어와 생활국어의 내용적 연결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교과서는 소단원의 학습목표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대단원 학습목표만 제시하고 있는데 대단원 학습목표가 여러 영역의 학습목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문법 영역이 단원명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표11> 교학사(김형철 외) 교과서의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표

소단원명	국어	생활국어
1.매체 언어	1-2 3.매체로 만나는 더 넓은 세상	
2.지시어· 관용 표현 2-1 관용 표현 2-2 지시어	1-2 2.합리적인 주장을 찾아서	
	1-1 3.지식과 정보를 찾아	
3.품사	1-1 4.품사의 세계	
4.사동과 피동	1-2 4.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	

위의 <표11> 교학사(김형철 외) 교과서의 중학교 1학년 국어와 생활 국어 교과서의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표를 보면, '3. 지식과 정보를 찾아'라는 단원이 문법과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 단원의 소단원은 '(1)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2)한국의 전통 놀이, (3)양성평등, 어디까지 왔나'이다. 소단원 모두 문법 영역과는 연관이 없는 제재글인 것이다. 하지만 세 번째 학습 목표는 '지시어가 글의 구조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로 문법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제재글이 세 번째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자료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물론 단원명과 학습 목표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 목표와 제재글은 분명 서로 밀접한 연관[17]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포함한 각 단원별 내용과 구성 방식 등에 관하여 분석해 보고 학습 목표와의 연관성 등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4.2.2.2. 단원별 내용과 구성 방식 분석 및 문제점

▶ 국어 1-1 3. 지식과 정보를 찾아(지시어)

이 단원에서는 3개의 제재글이 등장한다. 하지만 어느 제재글도 지시어와는 연관이 없다. 제재글의 학습 전 원리학습이라고 하여 그 단원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지시어에 대한 언급은 교과서 한 페이지의 반도 차지하고 있지 않다. 하나의 성취기준인 지시어에 관련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 지시어의 종류만 나열되어 있고 각각의 기능이나 분석 방법 등은 빠져 있어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어렵다. 구성 방식은 제재글을 제시한 후 학습 활동으로 지시어 이해하기, 지시어로 바꾸어 쓰기, 지시어의 역할 알기를 차례대로 제공하고 있는데 세 활동의 이름만 다를 뿐 결국은 같은 활동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심화 활동에 전혀 지시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은 점도 구성 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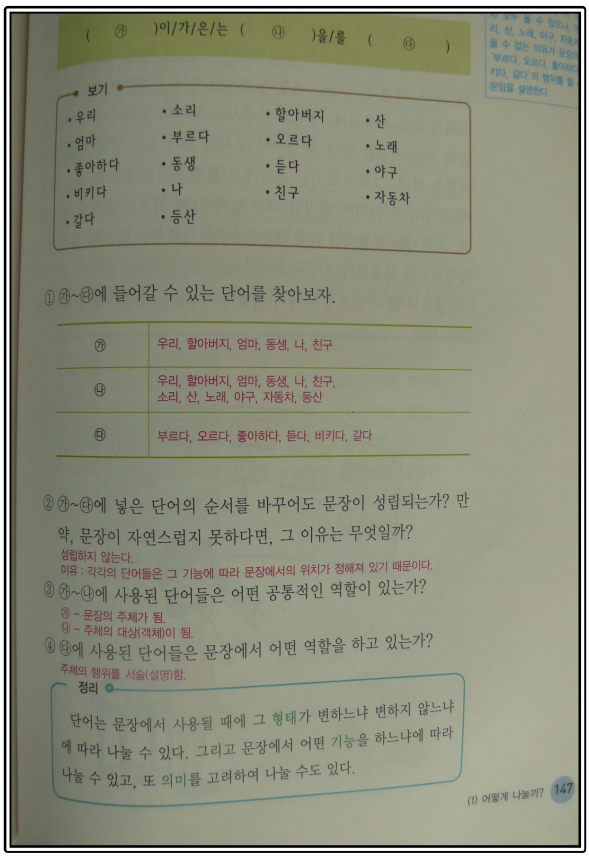
▶ 국어 1-1 4. 품사의 세계

이 단원은 '(1)어떻게 쓰일까'와 '(2)어떻게 나눌까'로 나누어져 있다. 원리학습에서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문장 속에서 단어들의 관계를 학습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문장 성분이 갑자기 제시된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17) 교육인적자원부(2007), 『중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기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p.18.

5학년 때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학습하였다고는 해도 관형어, 부사어는 한번도 나오지 않은 용어인데 원리학습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품사와 비교하여 바로 제시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교사들은 품사와 함께 문장 성분까지 가르쳐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그림2> 교학사(김형철 외) 교과서 147쪽 : 품사



(㉮)이/가/은/는 (㉯)을/를 (㉰)

보기

• 우리	• 소리	• 할아버지	• 산
• 엄마	• 부르다	• 오르다	• 노래
• 좋아하다	• 동생	• 듣다	• 야구
• 비키다	• 나	• 친구	• 자동차
• 갈다	• 등산		

① ㉮~㉰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찾아보자.

㉮	우리, 할아버지, 엄마, 동생, 나, 친구
㉯	우리, 할아버지, 엄마, 동생, 나, 친구, 소리, 산, 노래, 야구, 자동차, 등산
㉰	부르다, 오르다, 좋아하다, 듣다, 비키다, 갈다

② ㉮~㉰에 넣은 단어의 순서를 바꾸어도 문장이 성립되는가? 만약, 문장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성립하지 않는다.
이유 : 각각의 단어들은 그 기능에 따라 문장에서의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③ ㉮~㉯에 사용된 단어들은 어떤 공통적인 역할이 있는가?
㉮ – 문장의 주체가 됨.
㉯ – 주체의 대상(객체)이 됨.

④ ㉰에 사용된 단어들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주체의 행위를 서술(설명)함.

정리

단어는 문장에서 사용될 때에 그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고, 또 의미를 고려하여 나눌 수도 있다.

(1) 어떻게 나눌까? 147

그리고 위의 147쪽 품사 분류하기의 문제 1을 보면 '자동차'가 문장의 주체로서 '오르다' 동사를 가질 수 없다(2008:147)[18]고 제시되어 있는데 '자동차가 산을 오르다.'라는 문장이 분명 성립되고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예문이 일반적인 한국인의 국어 생활 속에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19]는 기준

18) 교사용 지도서, 김형철 외, (주)교학사.

에 따라 학생들에게 확실한 문법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예문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품사의 분류에서 굳이 문장 성분인 주어와 목적어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품사와 문장 성분은 문법적으로 분명 다른 영역이므로 이를 한꺼번에 학습한다면 가능한 한 학습자의 수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다.

▶ 국어 1-2 2. 합리적인 주장을 찾아서(관용 표현)

이 단원도 읽기와 문법 영역이 통합되어 있다. 건의문을 읽고 그 속에 있는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학습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제재글 속에는 관용 표현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리 학습 부분의 예시가 부족하고 본문 학습에서도 총 3개의 제재글 속에 관용 표현은 명언 1번, 관용어 1번이 나왔을 뿐이다. 그나마 속담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학습 목표 성취를 위한 제재글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의 형성에 부합하고 문법 영역의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데 적합한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 이런 문법적 학습 목표와 관련이 없는 제재글로 학습을 한 후에 학습 활동에서만 관용 표현에 관한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다. 이는 문법 영역이 읽기 영역과 통합되었다기보다는 문법 영역이 읽기 영역에 완전 묻혀 버린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단원을 학습하고 문법적 학습 목표에 도달한 학생들이 얼마나 될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문법 영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제재글 속에 통합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어 1-2 3. 매체로 만나는 더 넓은 세상

이 단원은 문법적 성취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매체 언어 단원이다. 그럼에도 불

---

19) 교육인적자원부(2007), 『중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기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p.18.

구하고 단원명 바로 옆 영역을 표시하는 곳에 문법이 아니라 읽기 영역이라고 표시한 오류를 찾을 수 있다. 원리 학습을 살펴보면 인쇄 매체, 방송 매체, 디지털 통신 매체로 분류하여 매체에 따른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와 특성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인쇄 매체 언어 읽기에서는 청소년 잡지를 직접 제시하였는데 학습 활동에 생체 인식 기술 관련 문제가 너무 많아 매체의 특성보다는 매체 안의 과학적인 내용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다루는 자료가 특정 국어 생활의 것에 치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제반 국어 생활 양상의 자료 가운데에서 골고루 자료를 선정한다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번째 내용 요소,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사용하기 부분이 교과서에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매체를 강조하고 있어 여러 단원에서 매체의 사용을 보이고 있지만 단원별로 그 학습 내용의 차이가 거의 없어 중복되는 느낌이 많다. 1학기 생활 국어의 설명문 쓰기 영역에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 선정하기'가 제시되는데 매체의 특성이 학습 요소로 나와 있다. 그런데 같은 학기 같은 책 6단원에서 매체에 따른 광고가 학습 요소로 나와 있어 인쇄 매체, 방송 매체, 디지털 통신 매체의 특성을 다시 학습한다. 이 모든 것을 배운 다음 2학기에 와서 매체 언어에 대해 학습하는 순서이다. 이는 학습의 위계성에 문제가 있다. 매체 언어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난 후 그 뒤에 매체에 따른 광고나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학습 순서의 위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국어 1-2 4.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은 하나의 문법적 성취 기준을 학습하는 온전한 문법 단원이다. 소단원 역시 (1) 사동 표현, (2) 피동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고, 개념, 만드는 방법, 심리적, 사회적 특성으로 학습 목표와 학습 요소가 통일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학습 순서는 사동 · 피동 표현을 찾아보고 이해하며, 의미를 파악해 보

고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까지 제시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정리하며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심화 학습에서 탐구 주제로 제시한 부분도 사동문을 주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와 피동 표현의 중의성으로 기본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 학습 순서의 위계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4.2.3. 천재교육(김대행 외)

4.2.3.1.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

먼저 천재교육(김대행 외) 교과서의 중학교 1학년 국어와 생활 국어 교과서의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12> 천재교육(김대행 외) 교과서의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표

소단원명	국어	생활국어
1.매체 언어	1-2 3.매체와 함께	
2.지시어· 관용 표현 2-1 관용 표현 2-2 지시어		1-1 1.말의 묘미 (2)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1-2 1.느끼며 다독이며 (3)위로나 격려의 글쓰기
		1-1 4.우리말 들여다보기 (1)지시어의 힘
3.품사	1-1 4.우리말 들여다보기	
4.사동과 피동		1-1 4.우리말 들여다보기 (2)사동 표현과 표현의도 (3)피동 표현과 표현의도

<표12>를 보면 이 교과서는 문법 영역을 국어와 생활국어 어느 한 곳에 편중시키지 않고 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매체 언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법 영역을 1학기에 대부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품사, 지시어, 사동과 피동 등 1학년의 문법 영역을 모두 한 학기에 학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고 있으며 게다가 이 모든 문법 내용을 한 단원에 배치하여 학생들이 이 단원을 배울 때 문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교과서는 많은 문법 영역을 대단원 하나로 통합하여 학습량이 방대하고 문법은 지루한 단원이라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각 단원별 내용과 구성 방식을 분석해 보고 단원별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4.2.3.2. 단원별 내용과 구성 방식 분석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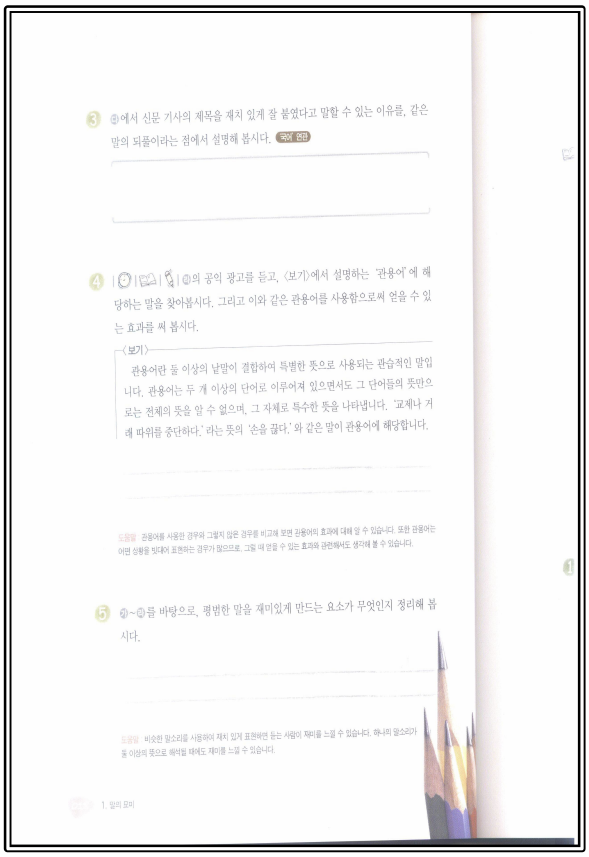
▶ 생활국어 1-1 1. 말의 묘미 (2)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이 단원은 '말소리를 이용한 말장난', '예상을 뒤집는 내용', '패러디'로 나누어져 있다.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 단원의 학습목표이다. '고등학교 국어(상) 3단원 봉산탈춤'에서 제시하는 언어유희와 관련이 있어 넓은 의미의 선행학습으로 볼 수 있으며, 내용 또한 학습자로 하여금 국어수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아래 교과서 18쪽에서 제시하는 '관용어'에 대한 개념[20]은 이 단원과의 연관성이 작으며 그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학습자가 이해하고 활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재담을 하나의 단원으로 다루고 있는 다른 교과서 교학사(김형철)에 비해 내용의 폭이 작다는 단점이 있다. 다양하고 충분한 예문을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재미있는 말의

20) 둘 이상의 낱말의 결합하여 특별한 뜻으로 사용되는 관습적인 말입니다. 관용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그 단어들의 뜻만으로는 전체의 뜻을 알 수 없으며, 그 자체로 특수한 뜻을 나타냅니다.

뜻을 찾아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패러디를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수업에 대한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려 시도하였지만 통신 매체의 대화명에만 국한되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영화, 소설 등의 한 부분을 제시하여 패러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림3> 천재교육(김대행 외) 교과서 18쪽 : 관용어



3 ㉠에서 신문 기사의 제목을 재치 있게 잘 붙였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같은 말의 되풀이라는 점에서 설명해 봅시다. 국어 연관

4 ㉡|㉢|㉣|㉤의 공익 광고를 듣고, 〈보기〉에서 설명하는 '관용어'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써 봅시다.

〈보기〉

관용어란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특별한 뜻으로 사용되는 관습적인 말입니다. 관용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그 단어들의 뜻만으로는 전체의 뜻을 알 수 없으며, 그 자체로 특수한 뜻을 나타냅니다. '교제나 거래 따위를 중단하다.'라는 뜻의 '손을 끊다.'와 같은 말이 관용어에 해당합니다.

도움말 관용어를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관용어의 효과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관용어는 어떤 상황을 있는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럴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 ㉠~㉤를 바탕으로, 평범한 말을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도움말 비슷한 말소리를 사용하여 재치 있게 표현하면 듣는 사람이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말소리가 둘 이상의 뜻으로 해석될 때에도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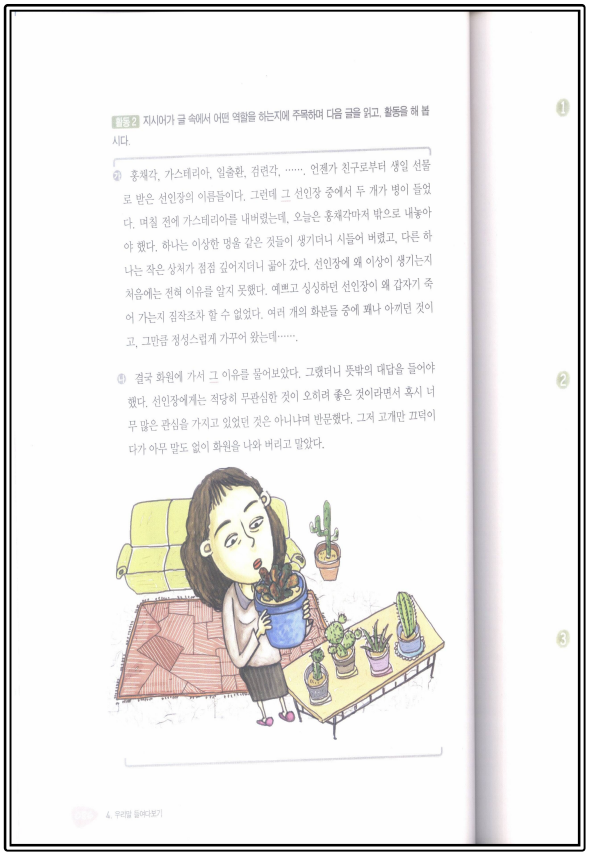
1. 말의 묘미

▶ 생활국어 1-1 4. 우리말 들여다보기 (1)지시어의 힘

이 단원은 '지시어의 역할', '지시어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로 나누어져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지시어가 글의 구조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시어 사용 효과를 학습자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데 86쪽에 제시된 두 번째 활동은 예문 속에 제시된 지시어에 비해 본문내용이 너무 길어 지시어를 찾는 활동으로 부적절하다. 이보다는 간단한 예문 여러 가지를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가 생활속에서 지시어를 활용한 경험을 찾아보고 지시어의 의미를 찾아보는 활동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림4> 천재교육(김대행 외) 교과서 86쪽 : 지시어



활동 2 지시어가 글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주목하며 다음 글을 읽고, 활동을 해 봅시다.

❷ 홍채각, 가스테리아, 일출환, 검련각, ……. 언젠가 친구로부터 생일 선물로 받은 선인장의 이름들이다. 그런데 그 선인장 중에서 두 개가 병이 들었다. 며칠 전에 가스테리아를 내버렸는데, 오늘은 홍채각마저 밖으로 내놓아야 했다. 하나는 이상한 멍울 같은 것들이 생기더니 시들어 버렸고, 다른 하나는 작은 상처가 점점 깊어지더니 곪아 갔다. 선인장에 왜 이상이 생기는지 처음에는 전혀 이유를 알지 못했다. 예쁘고 싱싱하던 선인장이 왜 갑자기 죽어 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여러 개의 화분들 중에 꽤나 아끼던 것이고, 그만큼 정성스럽게 가꾸어 왔는데…….

❹ 결국 화원에 가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을 들어야 했다. 선인장에게는 적당히 무관심한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라면서 혹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다가 아무 말도 없이 화원을 나와 버리고 말았다.

4. 우리말 들여다보기

▶ 생활국어 1-1 4. 우리말 들여다보기 (2)사동 표현과 표현의도
(3)피동 표현과 표현의도

소단원(2)는 사동의 개념과 표현 방법, 표현 방법에 따른 의미차이, 사동 표현의

올바른 사용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단원(3)은 피동의 개념과 표현 방법, 표현 방법에 따른 의미차이, 피동 표현의 올바른 사용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동 표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주동 표현과 함께 제시하였고 이를 심화하여 주동 표현을 사동 표현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림으로 된 예문이 학습자의 이해를 도와주고 잘못된 사동 표현을 고치는 활동을 통해 원리 학습을 마무리하고 있다. 피동 표현에서도 이 구성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전체적인 내용 전개와 구성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동, 피동 표현에서 주동, 능동 표현으로 고치는 과정이 너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어 학습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더 다양한 예문이나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 국어 1-1 4. 우리말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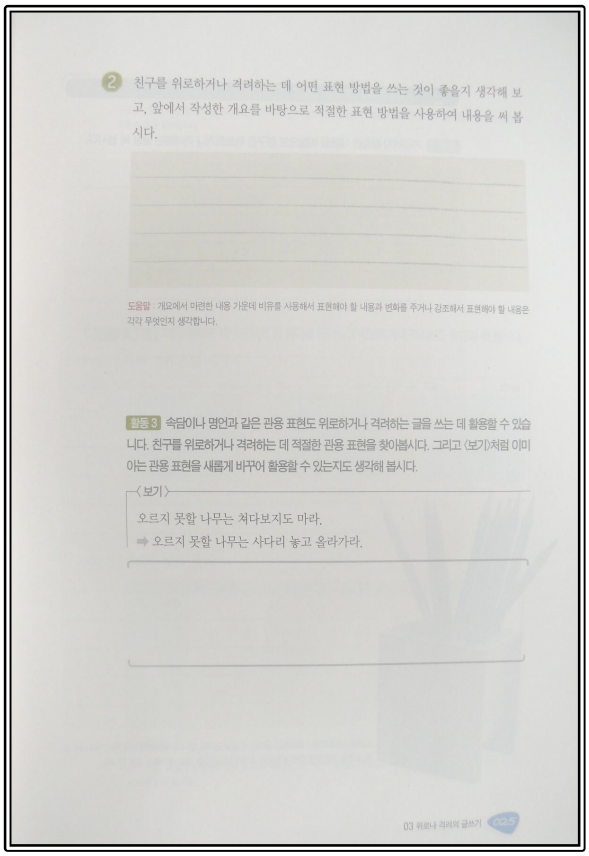
이 단원에서는 품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품사를 하나의 대단원으로 하여 '단어, 헤쳐 모여'와 '이름 안에 열쇠 있다'의 소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단원명을 재미있게 정한 점과 삽화 등을 많이 사용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문법 단원의 편중으로 인한 학생들의 문법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생활국어 교과서와는 이원화되어 있어 학습 내용의 중복은 일어나지 않는다. 즉 품사에 대해서는 이 한 단원을 통해 모든 지식이 학습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습자에게 단어가 분류된다는 것을 전달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하나하나 분류해 가는 과정과 각각의 품사마다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학습하게 하는 구성이 효과적인 학습 효과를 줄 수 있다.

▶ 생활국어 1-2 1. 느끼며 다독이며 (3)위로나 격려의 글쓰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다양한 위로나 격려의 글을 읽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다. 위로나 격려의 글을 예문으로 하여 다양한 표현 방법을 찾아보고

그 표현 효과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위로나 격려의 글을 직접 써보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은 학습자 스스로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25쪽 세 번째 활동에서 위로나 격려에 사용할 수 있는 관용 표현을 찾아보는 활동은 학습자에게 관용 표현에 대한 정확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무리가 따른다 하겠다. '속담이나 명언 등이 이에 속한다.'라는 표현만을 가지고 이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관용 표현에 대한 원리 학습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원의 마무리에도 '관용 표현을 활용하기'라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논술에서의 관용 표현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관용 표현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일관성있는 관용 표현 효과가 요구된다.

<그림5> 천재교육(김대행 외) 교과서 25쪽 : 관용 표현


2 친구를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데 어떤 표현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고, 앞에서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적절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써 봅시다.

도움말 : 개요에서 마련한 내용 가운데 비유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할 내용과 변화를 주거나 강조해서 표현해야 할 내용은 각각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활동 8 속담이나 명언과 같은 관용 표현도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글을 쓰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데 적절한 관용 표현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보기〉처럼 이미 아는 관용 표현을 새롭게 바꾸어 활용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봅시다.

〈보기〉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 오르지 못할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03 위로나 격려의 글쓰기 25

▶ 국어 1-2 3. 매체와 함께

이 단원은 교육 과정 속 매체 언어 영역의 내용 요소를 고루 학습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헬렌 켈러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언어의 역할과 중요성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문법 영역과 일반 제재글의 통합이 자연스럽게 된 경우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재글을 통해서 첫 번째 소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부할 요소 두 가지 중 첫 번째 요소만 학습할 수 있고 두 번째 요소의 학습을 위해서는 '적용마당'에 또 다른 제재글이 제시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결국 하나의 소단원에 둘 이상의 제재글이 등장하여 학생들에게 너무 과다한 학습량을 주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 할 수 있다.

4.2.4. 천재교육(노미숙 외)

4.2.4.1.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

우선 천재교육(노미숙 외) 교과서의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13> 천재교육(노미숙 외) 교과서의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표

소단원명	국어	생활국어
1.매체 언어	1-1 6.세상이 말을 걸다 (3)매체 언어	1-1 6.세상이 말을 걸다 (3)매체 언어
2.지시어· 관용 표현 2-1 관용 표현 2-2 지시어	1-2 4.역사, 문화, 그리고 우리 (3)관용 표현	1-2 4.역사, 문화, 그리고 우리 (3)관용 표현
	1-1 4.공부의 비법 (3)지시어	1-1 4.공부의 비법 (3)지시어
3.품사	1-1 2.읽기의 달인 (3)품사	1-1 2.읽기의 달인 (3)품사
4.사동과 피동	1-2 2.더불어 이야기하자 (3)사동과 피동	1-2 2.더불어 이야기하자 (3)사동과 피동

<표13>는 천재교육(노미숙 외) 교과서의 중학교 1학년 국어와 생활 국어 교과서의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표이다. 국어와 생활국어의 단원명이 일치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생활국어 교과서가 국어 교과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과서의 경우 국어와 생활국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영역 간의 통합을 중시하여 하나의 대단원에 여러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법 영역은 주로 대단원 속의 마지막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문법이 주가 되는 대단원은 찾아 볼 수 없는 것 또한 특징이라 하겠다. 문법 영역이 다른 영역 속에 묻혀 있어 문법 영역의 비중 또한 다른 교과서에 비해 매우 적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단원별 내용과 구성 방식을 분석해 보고 그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4.2.4.2. 단원별 내용과 구성 방식 분석 및 문제점

▶ 1-1 2. 읽기의 달인 (3)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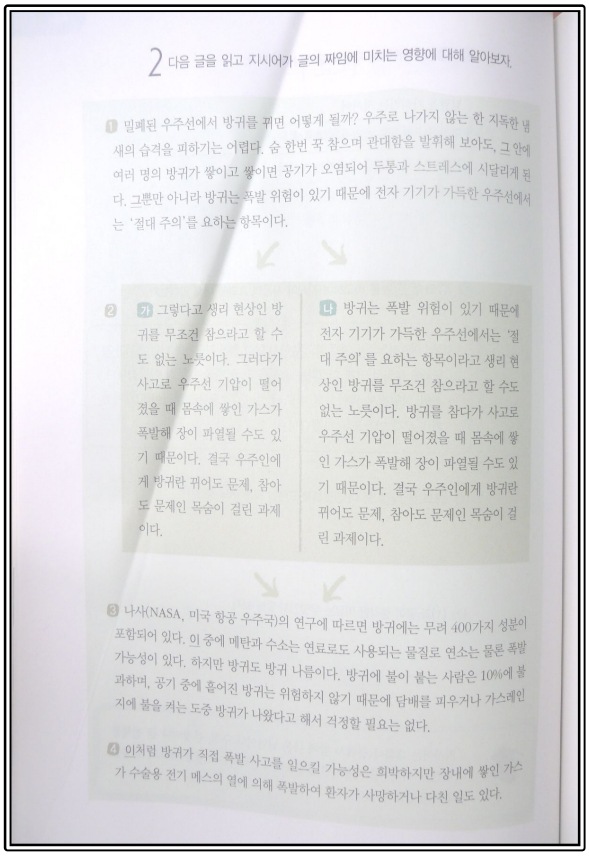
이 소단원의 학습 목표는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갈래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단원명은 품사와는 관련이 없는 '읽기의 달인'이다. 따라서 대단원과 소단원의 학습목표 간 연계성을 찾아볼 수 없다. 품사는 중요한 문법 영역이지만 이 교과서에서는 읽기 영역 속 하나의 작은 단원으로 그 위상이 매우 낮아졌다. '대단원 닫기'에서 정확한 언어생활의 기본이 되는 품사를 학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대단원과의 연계성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특히 학습자가 처음 접하게 되는 관형사, 부사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품사 영역은 하나의 대단원으로 배치하여 내용 및 구성 요소 학습에 있어 다양한 예시와 활동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1-1 4. 공부의 비법 (3)지시어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글이나 대화에서 지시어의 역할을 아는 것이다. 구성을

보면 먼저 지시어의 개념을 정립한 뒤, 지시어 사용의 효과를 알아보고, 지시어를 직접 활용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습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지시어의 개념을 명확히 한 다음 여러 가지 예문을 통해 지시어 사용의 효과를 언급하였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과정과 함께 학습자 혼자서 해결하는 스스로의 학습을 유도하고 있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특히 164쪽에서는 예문을 제시하여 지시어가 글의 짜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 지시어의 쓰임에 대하여 알아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지시어의 쓰임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단과 문단의 관계 및 각 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 등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단원은 매우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순서를 따르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림6> 천재교육(노미숙 외) 교과서 164쪽 : 지시어



2 다음 글을 읽고 지시어가 글의 짜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1 밀폐된 우주선에서 방귀를 뀌면 어떻게 될까? 우주로 나가지 않는 한 지독한 냄새의 습격을 피하기는 어렵다. 숨 한번 꾹 참으며 관대함을 발휘해 보아도, 그 안에 여러 명의 방귀가 쌓이고 쌓이면 공기가 오염되어 두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방귀는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자 기기가 가득한 우주선에서는 '절대 주의'를 요하는 항목이다.

2 가 그렇다고 생리 현상인 방귀를 무조건 참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다가 사고로 우주선 기압이 떨어졌을 때 몸속에 쌓인 가스가 폭발해 장이 파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주인에게 방귀란 뀌어도 문제, 참아도 문제인 목숨이 걸린 과제이다.

나 방귀는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자 기기가 가득한 우주선에서는 '절대 주의'를 요하는 항목이라고 생리 현상인 방귀를 무조건 참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방귀를 참다가 사고로 우주선 기압이 떨어졌을 때 몸속에 쌓인 가스가 폭발해 장이 파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주인에게 방귀란 뀌어도 문제, 참아도 문제인 목숨이 걸린 과제이다.

3 나사(NASA, 미국 항공 우주국)의 연구에 따르면 방귀에는 무려 400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 메탄과 수소는 연료로도 사용되는 물질로 연소는 물론 폭발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방귀도 방귀 나름이다. 방귀에 불이 붙는 사람은 10%에 불과하며, 공기 중에 흩어진 방귀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거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도중 방귀가 나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4 이처럼 방귀가 직접 폭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장내에 쌓인 가스가 수술용 전기 메스의 열에 의해 폭발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일도 있다.

▶ 1-1 6. 세상이 말을 걸다 (3)매체 언어

이 단원은 소단원의 구성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 현재 '(1)광고와 설득', '(2)인터넷 토론', '(3)매체언어'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를 '(1)매체언어', '(2)광고와 설득', '(3)인터넷 토론'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광고'는 영상 매체나 인쇄 매체에 해당하며 '인터넷'은 통신 매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매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 아래 '광고'나 '인터넷 토론'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3)매체언어'에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로 분류하여 언어의 특징을 습득한 후 매체언어의 특성에 대해 학습해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교과서에는 인쇄 매체와 통신 매체만 있을 뿐 영상 매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다. 영상 매체에 대한 학습까지 고루 이루어진 다음에 나머지 소단원의 학습이 이루어져야만 학습자가 매체 간의 특성을 알고 다음 단원에서도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 질 것이다.

▶ 1-2 2. 더불어 이야기하자 (3)사동과 피동

이 영역의 학습 목표는 사동과 피동 표현에 대해 이해하고, 피동과 사동 표현을 사용할 때 그 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각 표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그림과 문장을 같이 제시함으로써 행위의 주체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표현 효과를 제시할 때도 주동과 사동 표현의 차이점, 능동과 피동 표현의 차이점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사동과 피동 표현을 듣기, 말하기 영역 소단원과 같은 대단원 속에 제시하여 영역 간 통합 학습을 시도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같은 단원의 생활국어 교과서는 그 활동이 매우 쉽고 학습량이 너무 작아 국어의 심화 · 보충 자료가 아닌 기본 내용 이해를 도와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중심으로 구성한 듯한 이 교과서는 교사가 보조 수업 자료를 다양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보조 수업 자료는 흥미 위조가 아닌 기본 내용에 충실한 자료가 되어야 할 것이다.

▶ 1-2 4. 역사, 문화, 그리고 우리 (3)관용 표현

이 영역의 학습 목표는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알고 활용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단원 활동을 하기 전에 자기 점검을 통해 관용 표현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관용 표현에 속담이나 관용어, 명언이 속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이를 활용하여 각각의 특징과 효과를 찾아내는 활동을 한다. 이 단원은 개념, 효과, 활용 순으로 잘 구성되어 있고 학습 도중에 학습자 스스로 해보는 활동까지 포함되어 있어 학습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소단원 역시 대단원명과 연관성이 적고 그로 인한 과도한 통합이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생활국어 교과서는 활동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용어, 속담, 명언을 찾고 활용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4.2.5. 지학사(이용남 외)

4.2.5.1.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

지학사(이용남 외) 교과서의 중학교 1학년 국어와 생활 국어 교과서의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표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14> 지학사(이용남 외) 교과서의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표

소단원명	국어	생활국어
1.매체 언어	1-1 5.생활 속의 매체 (1)매체와 언어	1-1 5.생활 속의 매체 (1)다양한 매체의 언어사용방식
2.지시어· 관용 표현 2-1 관용 표현 2-2 지시어	1-2 4.지혜가 담긴 말, 웃음을 주는 말 (1)익숙한 것에 기대어 말하기	1-2 4.지혜가 담긴 말, 웃음을 주는 말 (1)관용 표현의 이해와 활용
	1-2 1.이렇게 읽는다 (3)지시어에 주목하여 읽기	1-2 1.이렇게 읽는다 (3)지시어가 글에 미치는 영향
3.품사	1-1 3.단어들의 차림표	1-1 3.단어들의 차림표
4.사동과 피동	1-1 7.다른 말, 다른 표현 (2)표현 의도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기	1-1 7.다른 말, 다른 표현 (2)사동·피동 표현의 의미와 효과

<표14>를 보면, 국어와 생활국어의 대단원명은 일치하지만 소단원명을 달리하여 차별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어 교과서에서는 문법 영역의 학습 요소를 포함한 제재를 제공하여 읽기나 말하기 등의 표현 학습을 하게하고 생활국어 교과서에서 문법 영역의 지식 요소를 학습시키는 이원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생활국어에서는 문법 영역의 기본 지식을 학습하고, 국어 교과서에서는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읽기나 말하기 등 다른 영역과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각 단원별 내용과 구성 방식을 분석해 보고 단원별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4.2.5.2. 단원별 내용과 구성 방식 분석 및 문제점

▶ 국어 1-1 3. 단어들의 차림표

이 단원은 ‘(1)품사란 무엇일까’와 ‘(2)품사의 여러 가지 모습’ 이 두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 시작하기’에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중국집 메뉴판으로 분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품사의 분류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끌 만한 자료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생각 깨우기'에서는 예문을 통해 올바른 분류 기준과 잘못된 분류 기준을 제시하면서 분류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용 학습을 시작한다. '(1) 품사란 무엇일까'에서는 품사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품사를 놀이를 통해 익히도록 교수· 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교사는 이러한 놀이를 통해 학습자가 품사 분류 기준을 정확히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고 '경험하기'를 통해 그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2)품사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는 9품사를 수민이의 하루 일과와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그림 속에 제시된 내용과 9품사를 연관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문법을 어렵게만 느꼈던 학습자에게는 문법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이러한 문법이 일상 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국어 1-1 5. 생활 속의 매체 (1)매체와 언어

이 단원은 '(1)매체와 언어'라는 단원 제목에 맞게 구성이 잘 짜여져 있다. 우선 '단원 시작하기'와 '생각 깨우기'를 통해서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을 미리 짐작하도록 해준다. 내용 학습에 들어가면 우선 언어를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로 분류하고 각 언어의 특성이 무엇인지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가 매체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통해 매체와 언어와의 관계를 이끌어 낸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에 사용되는 언어를 비교, 분석해 보고 이러한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경험하기' 단계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배운 내용을 되짚어 보고 언어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끌어 내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은 언어가 우리 생활에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학습자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어 1-1 7. 다른 말, 다른 표현 (2)표현 의도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기

이 단원에서는 사동 표현 · 피동 표현의 의미를 알고 이를 통해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며, 더 나아가 심리적 · 사회적 특성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학습 목표이다. 교과서 258쪽부터 259쪽까지 제시된 사동, 피동 표현은 개념 설명은 명확하나 그 표

현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예문이 다양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료 꾸러미’를 통해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지만 학습자로 하여금 중요도 인식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훑어보기 식으로 활동이 진행된다. 본문 내용으로 수록하여 학습자 스스로 문장을 고쳐보는 구성을 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문맥적 의미 해석 역시 교과서 내용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교사는 학습지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활동해 보고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경험하기’에서 네 번째 활동은 사동 표현에서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으로 바꾸는 활동인데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어떤 표현으로 바꾸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생활국어 교과서 역시 ‘사동 · 피동 표현의 의미와 효과’라는 단원이 있는데 생활 국어와 국어의 학습 순서 역시 교사의 재량에 맡길 수 있는 수준으로 연계되어 있어 구성이나 짜임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7> 지학사(이용남 외) 교과서 258-259쪽 : 사동과 피동

▶ 생활국어 1-2 1. 이렇게 읽는다 (3)지시어가 글에 미치는 영향

이 단원은 국어 2학기 '1.(3)지시어에 주목하여 읽기'를 미리 학습하고 난 뒤에 수업을 시행해야 한다. '(3)지시어에 주목하여 읽기'에서 지시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고 이를 '탐구하여 알기'를 통해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 본문의 내용 설명이 여러 문단에 걸쳐 나타나 있고 예문이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여 문장에서 지시어의 쓰임을 찾아내는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이미 앞선 국어 수업에서 '지시어가 글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했기 때문에 생활국어에서 '지시어가 글에 미치는 영향'을 찾는 활동은 학습자에게 친숙할 것이다. 이 단원에서는 바탕 활동을 통해서 지시어의 개념을 다시 짚어주고 경험 활동을 통해 지시어의 쓰임과 역할을 학습하도록 한다. 이때 경험 활동은 선택 활동으로 학습자가 활동을 선택하여 예문 속에서 지시어를 찾고, 그 지시어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지시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 생활국어 1-2 4. 지혜가 담긴 말, 웃음을 주는 말 (1)관용 표현의 이해와 활용

이 단원도 앞서 제시한 1단원과 마찬가지로 국어 2학기 '4.(1)익숙한 것에 기대어 말하기'를 미리 학습하고 난 뒤에 수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1)익숙한 것에 기대어 말하기'는 '단원 시작하기'를 통해 수업시간에 무엇을 배울 것인지 알려주며 학습 목표로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 이해하기, 상황에 맞게 활용하기를 제시한다. '생각 깨우기'를 통해서 관용어와 속담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낸 후 본문 학습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소단원 제목이 '(1)익숙한 것에 기대어 말하기'인 것처럼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관용표현들을 찾아내서 학습내용과 연관 짓도록 해야 한다. 개념이 명확해지면 관용 표현의 효과와 쓰이는 상황에 대한 학습을 하는데 교과서 143쪽부터 145쪽까지는 설명 위주로 편집,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학습지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학습이 끝나고 나면 '경험하기'를 통해 학습 내용을 내면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마치면 이어서 생활국어 2학기 '4.(1)관용 표현의 이해와 활용'을 학습하게 한다. 이미 국어 교과서에서 학습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 없이 바탕, 경험, 응용 활동을 바로 할 수 있게 나와 있다. '바탕 활동'을 통해 예문에서 관용 표현을 찾고 그 의미를 해석해 보는 기본 활동을 하게 되고 '경험 활동'에서는 제시된 상황에 맞게 관용 표현을 활용하는 학습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응용 활동'을 통해 관용 표현에 대한 학습을 마무리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응용 활동'은 수행평가 자료로 써도 유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8> 지학사(이용남 외) 교과서 143-145쪽 : 관용 표현

4.2.6. 미래엔컬처(윤여탁 외)

4.2.6.1.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

우선 미래엔컬처(윤여탁 외) 교과서의 중학교 1학년 국어와 생활 국어 교과서의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표 <표15>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표15> 미래엔컬처(윤여탁 외) 교과서의 성취 기준별 문법 단원 구성표

소단원명	국어	생활국어
1.매체 언어	1-1 4.매체와 함께하는 언어생활 (1)매체와 언어	1-1 4.매체와 함께하는 언어생활 (1)매체 언어의 특징
2.지시어·관용 표현 2-1 관용 표현 2-2 지시어	1-2 4.삶의 깨달음 나누기 (3)실수	1-2 4.삶의 깨달음 나누기 (2)상황에 맞는 관용 표현 활용
	1-1 2.말과 글의 이해 (1)읽기란 무엇인가	1-1 2.말과 글의 이해 (1)지시어와 글의 구조
3.품사	1-2 3.재미있는 우리말 (1)우리말 품사 나누기 (2)우리말 품사의 특성	1-2 3.재미있는 우리말 (1)품사 분류와 국어 생활
4.사동과 피동	1-1 3.인간의 심리와 갈등 이해 (1)나비를 잡는 아버지	1-1 3.인간의 심리와 갈등 이해 (1)의도에 따른 사동·피동 표현

이 교과서는 바로 앞에서 살펴 본 지학사(이용남 외) 교과서처럼 국어와 생활국어의 대단원명이 일치한다. 그러나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앞의 교과서와는 차이가 있다. 단원별로 매우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품사 영역을 예로 들면, 국어 교과서에서 문법 영역 지식을 학습하고 생활국어 교과서에서 실제 연습을 해보는 형식을 취하지만 그 외의 단원에서는 생활국어 교과서에서 문법 영역의 지식을 습득하게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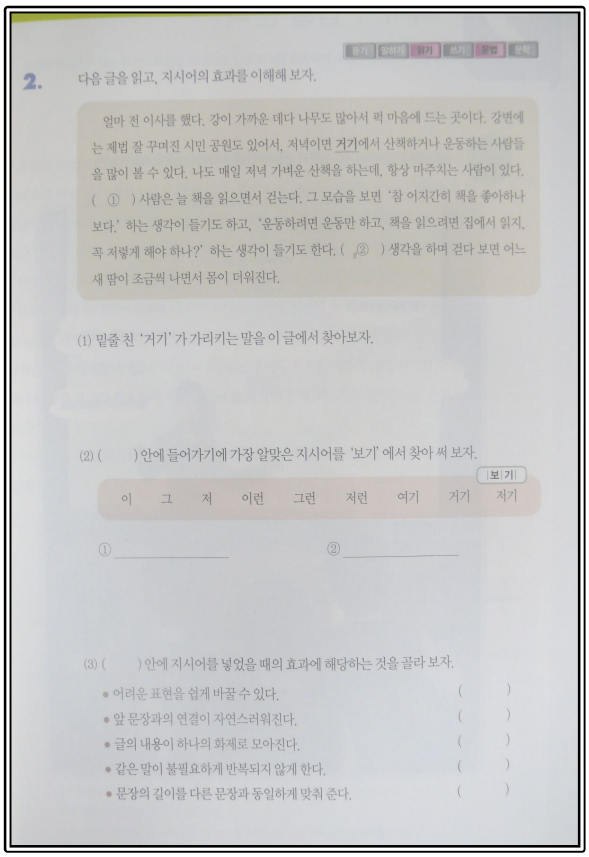
다음에서는 문법 영역의 내용 학습과 직접 연관이 있는 단원을 중심으로 내용과 구성, 문제점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4.2.6.2. 단원별 내용과 구성 방식 분석 및 문제점

▶ 생활국어 1-1 2. 말과 글의 이해 (1)지시어와 글의 구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담화나 글에 사용된 지시어의 내용을 이해하고, 지시어가 글의 구조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국어 교과서에서 공부한 지식과 원리를 바탕으로 생활국어 교과서에서 다양한 언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심화 · 보충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국어와 생활국어의 단원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 수업과 생활국어 수업을 병행해서 해야 할 것이다. 국어 교과서에서 읽기와 문법을 함께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생활국어에서 지시어의 개념을 명확히 학습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시어와 글의 상관관계, 의미 연결하기를 연습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 학습이 먼저 이루어져야 국어 영역에서 읽기를 통한 문법 영역의 학습이 가능하다.

<그림9> 미래엔컬처(윤여탁 외) 교과서 61쪽 : 지시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2. 다음 글을 읽고, 지시어의 효과를 이해해 보자.

얼마 전 이사를 했다. 강이 가까운 데다 나무도 많아서 퍽 마음에 드는 곳이다. 강변에는 제법 잘 꾸며진 시민 공원도 있어서, 저녁이면 거기에서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나도 매일 저녁 가벼운 산책을 하는데, 항상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 (①) 사람은 늘 책을 읽으면서 걷는다. 그 모습을 보면 '참 어지간히 책을 좋아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운동하려면 운동만 하고, 책을 읽으려면 집에서 읽지, 꼭 저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②) 생각을 하며 걷다 보면 어느새 땀이 조금씩 나면서 몸이 더워진다.

(1) 밑줄 친 '거기'가 가리키는 말을 이 글에서 찾아보자.

(2) ( ) 안에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지시어를 '보기'에서 찾아 써 보자.

보기

이 그 저 이런 그런 저런 여기 거기 저기

① _____ ② _____

(3) ( ) 안에 지시어를 넣었을 때의 효과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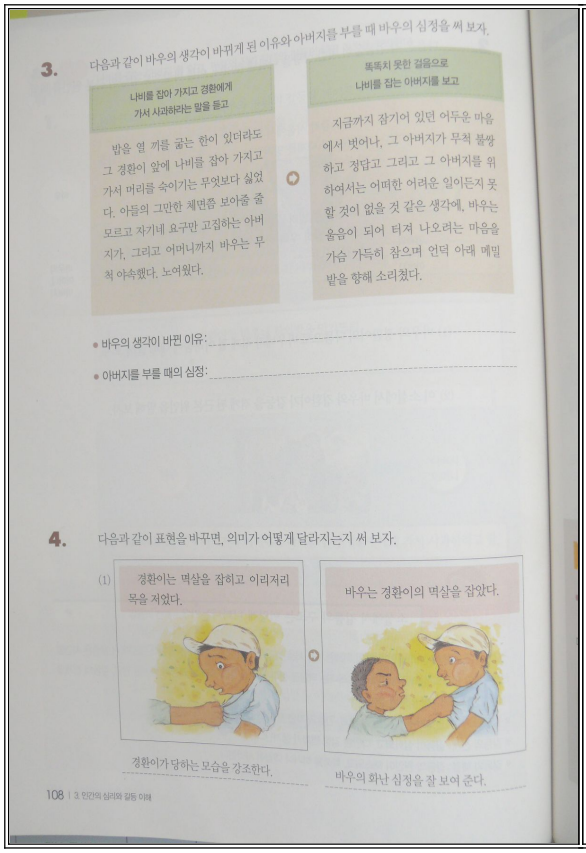
- 어려운 표현을 쉽게 바꿀 수 있다. ( )
- 앞 문장과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진다. ( )
- 글의 내용이 하나의 화제로 모아진다. ( )
- 같은 말이 불필요하게 반복되지 않게 한다. ( )
- 문장의 길이를 다른 문장과 동일하게 맞춰 준다. ( )

<그림9>의 61쪽 본문에서 지시어를 찾고 그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찾아내는 활동 역시 학습자로 하여금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생활국어에서 먼저 다양한 예를 들어 기본 내용을 학습시킨 뒤 활동하게 하는 효과적인 수업 전략을 세워야 한다.

▶ 생활국어 1-1 3. 인간의 심리와 갈등 이해 (1)의도에 따른 사동 · 피동 표현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사동· 피동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러한 표현에 담긴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단원은 국어 1학기 '3.(1) 나비를 잡는 아버지'와 연계가 되어 있다.

<그림10> 미래엔컬처(윤여탁 외) 교과서 108-109쪽 : 사동과 피동



3. 다음과 같이 바우의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와 아버지를 부를 때 바우의 심정을 써 보자.

나비를 잡아 가지고 경환에게 가서 사과하라는 말을 듣고

밤을 열 끼를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 경환이 앞에 나비를 잡아 가지고 가서 머리를 숙이기는 무엇보다 싫었다. 아들의 그만한 체면쯤 보아줄 줄 모르고 저기네 요구만 고집하는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까지 바우는 무척 야속했다. 노여웠다.

똑똑치 못한 걸음으로 나비를 잡는 아버지를 보고

지금까지 잠기어 있던 어두운 마음에서 벗어나, 그 아버지가 무척 불쌍하고 정답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든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생각에, 바우는 울음이 되어 터져 나오려는 마음을 가슴 가득히 참으며 언덕 아래 메밀밭을 향해 소리쳤다.

• 바우의 생각이 바뀐 이유: _____

• 아버지를 부를 때의 심정: _____

4. 다음과 같이 표현을 바꾸면,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써 보자.

(1) 경환이는 멱살을 잡히고 이리저리 목을 저었다.

바우는 경환이의 멱살을 잡았다.

경환이가 당하는 모습을 강조한다.

바우의 화난 심정을 잘 보여 준다.

108 | 3. 인간의 심리와 갈등 이해

위의 국어 교과서 108~109쪽에는 본문의 내용과 관련지어 사동 · 피동 표현을 찾아보고 의도에 따라 사동 · 피동 표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파악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개념이 학습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어 교과서뿐만 아니라 생활국어 교과서 역시 사동과 피동 표현의 개념, 의도 파악, 활동 모두가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어 심층적인 이해까지 이르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단원은 국어 문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한 단원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학습 전략 하에 수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생활국어 1-1 4. 매체와 함께하는 언어생활 (1)매체 언어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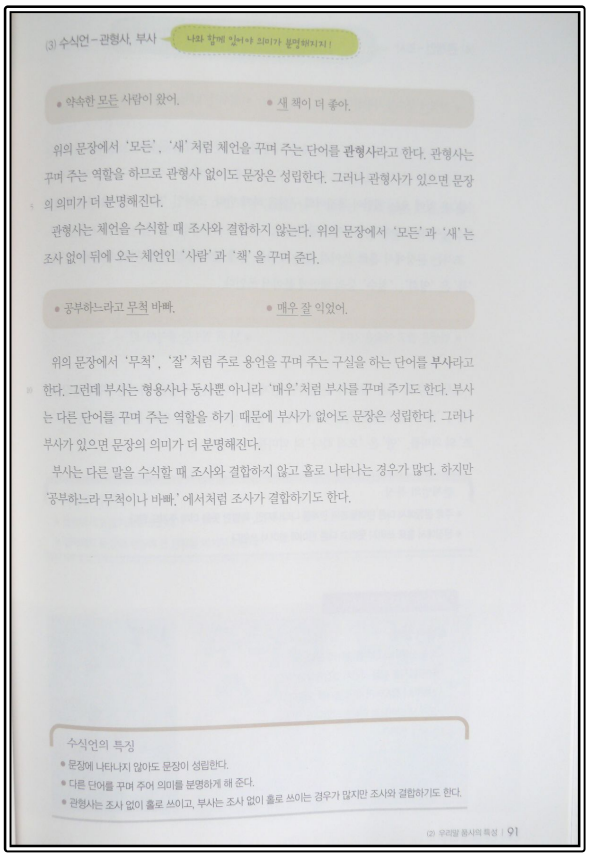
이 단원은 국어 교과서를 먼저 공부한 뒤 생활국어 교과서를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어 1학기 '4.(1)매체와 언어'는 음성언어를 시작으로 하여 디지털 매체까지의 흐름을 만화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내용 학습 시 학습자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매체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효과적인 학습 수단이 된다. 학습자에게 개념을 설명한 다음, 적용 단계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익히게 하고 이를 생활국어에서 다시 적용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매체 언어 사용 방식을 비교하여 매체언어의 특성을 정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원이다.

▶ 국어 1-2 3. 재미있는 우리말 (1)우리말 품사 나누기 (2)우리말 품사의 특성

이 단원은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 종류와 특성을 아울러 학습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크게 '(1)우리말 품사 나누기'와 '(2)우리말 품사의 특성'의 소단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1)우리말 품사 나누기'에 9품사가 제시되는데 그 분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9품사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품사에 관한 기본 내용 학습 후에 특성에 대한 학습 부분에서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직접 분류해 보도

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어 2학기 교과서 91쪽에 제시된 관형사, 부사는 학습자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므로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사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부사, 관형사,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문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11> 미래엔컬처(윤여탁 외) 교과서 91쪽 : 품사



(3) 수식언 – 관형사, 부사 — 나와 함께 있어야 의미가 분명해지지!

- 약속한 모든 사람이 왔어.
- 새 책이 더 좋아.

위의 문장에서 '모든', '새' 처럼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를 **관형사**라고 한다. 관형사는 꾸며 주는 역할을 하므로 관형사 없이도 문장은 성립한다. 그러나 관형사가 있으면 문장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할 때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위의 문장에서 '모든'과 '새'는 조사 없이 뒤에 오는 체언인 '사람'과 '책'을 꾸며 준다.

- 공부하느라고 무척 바빠.
- 배우 잘 익었어.

위의 문장에서 '무척', '잘' 처럼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를 **부사**라고 한다. 그런데 부사는 형용사나 동사뿐 아니라 '배우'처럼 부사를 꾸며 주기도 한다. 부사는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가 없어도 문장은 성립한다. 그러나 부사가 있으면 문장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부사는 다른 말을 수식할 때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부하느라 무척이나 바빠.' 에서처럼 조사가 결합하기도 한다.

수식언의 특징

- 문장에 나타나지 않아도 문장이 성립한다.
- 다른 단어를 꾸며 주어 의미를 분명하게 해 준다.
- 관형사는 조사 없이 홀로 쓰이고, 부사는 조사 없이 홀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조사와 결합하기도 한다.

(2) 우리말 품사의 특성 | 91

▶ 생활국어 1-2 3. 재미있는 우리말 (1)품사 분류와 국어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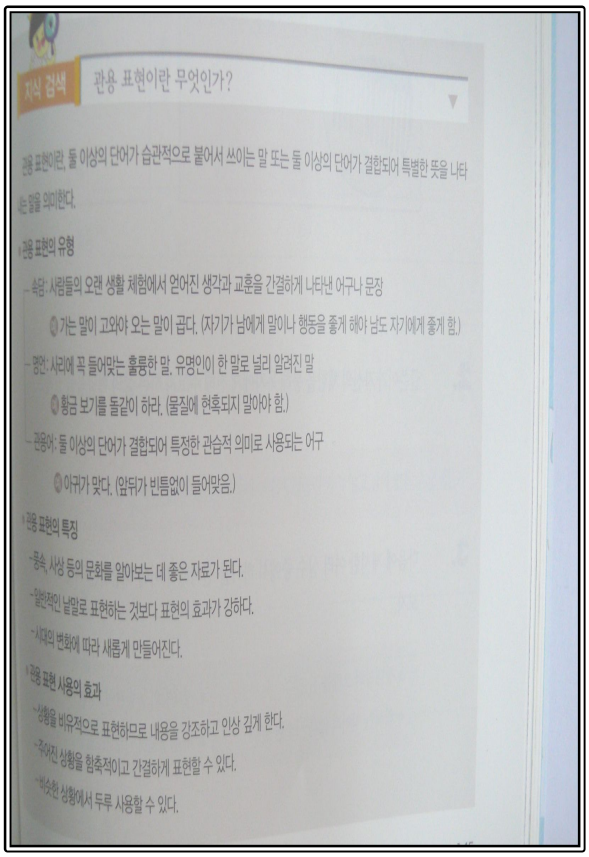
이 단원은 국어 2학기 '3.재미있는 우리말'을 모두 학습한 후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국어 교과서에서 품사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였다는 전제 하에 생활 국어 교과서는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학습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두 번째 활동에서 사전 찾는 활동과 품사의 특성의 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 두 활동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도록 교사의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어에서 품사의 학습이 잘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에서 생활국어 교과서를 집필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의 단원만을 분석하면 내용적으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지만 교과서 두 권을 연계하여 함께 학습한다면 학습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 생활국어 1-2 4. 삶의 깨달음 나누기 (2)상황에 맞는 관용 표현 활용

이 단원을 학습하기 전에 국어 2학기 '4.(3)실수'가 학습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제재글은 수필이지만 본문 중간에 관용적 표현이 많이 사용되어 있다.

<그림12> 미래엔컬처(윤여탁 외) 교과서 145쪽 : 관용 표현


지식 검색 관용 표현이란 무엇인가?

관용 표현이란, 둘 이상의 단어가 습관적으로 붙어서 쓰이는 말 또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되어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말을 의미한다.

▸관용 표현의 유형

- 속담 : 사람들의 오랜 생활 체험에서 얻어진 생각과 교훈을 간결하게 나타낸 어구나 문장
  - 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해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함.)
- 명언 : 사리에 꼭 들어맞는 훌륭한 말. 유명인이 한 말로 널리 알려진 말
  - 예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물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함.)
- 관용어 :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되어 특정한 관습적 의미로 사용되는 어구
  - 예 아귀가 맞다. (앞뒤가 빈틈없이 들어맞음.)

▸관용 표현의 특징

- 풍속, 사상 등의 문화를 알아보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 일반적인 낱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표현의 효과가 강하다.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다.

▸관용 표현 사용의 효과

-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므로 내용을 강조하고 인상 깊게 한다.
- 주어진 상황을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 비슷한 상황에서 두루 사용할 수 있다.

국어 교과서145쪽 ‘지식 검색’을 보면 관용 표현의 정의와 종류, 특징까지 나열되어 있어 학습자에게 관용적 표현의 의미를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 이 과정을 학습한 후 생활국어 2학기 ‘4.(2)상황에 맞는 관용 표현 활용’을 통해 국어 교과서에서 배운 관용 표현에 관한 지식을 정리하는 활동을 시행한다. 다시 말하면 이 활동은 학습자가 국어 교과서를 통해 관용적 표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어가 생활국어보다 선행학습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속담이나 관용어의 유래담을 참고로 하면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3. 분석 결과

이번 분석을 통해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교과서의 문법 내용 체계나 구성 방식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았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반영된 검정 교과서 6종의 가장 큰 공통점은 역시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만의 특징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였다는 점과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한 제재글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실제 생활과 연관된 제재글이 많았으며 여러 영역 간 또는 영역 내의 통합 시도 또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국정 교과서만을 사용함으로 인해 새로운 교육과정을 반영한 검정 교과서의 연구 역사가 길지 않아 단원들 간의 위계성 측면 또는 학습 목표들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조금은 어색한 점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매체 언어 영역의 제재글에서 이런 점들이 눈에 띄었다.

4장의 분석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천재교육(박영목 외)교과서는 국어와 생활국어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1학기에 매체 언어와 사동과 피동을 학습하고 2학기에 품사와 지시어 · 관용 표현을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품사와 지시어를 우리말 탐구라는 하나의 대단원으로 묶어 놓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1학기 내용인 사동과 피동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사동과 피동을 나타내 주는 접미사의 개념이 먼저 학습되어야 하는데 우리말의 형태소를 배우기 전에 피동과 사동 표현을 학습시키는 것은 7차 때와 마찬가지로 국어 구조의 위계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동과 사동 단원의 학습 전 형태소, 특히 접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다루어졌으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교학사(김형철 외)교과서 역시 앞에서 본 천재교육(박영목 외)교과서처럼 국어와 생활국어의 내용적 연결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교과서는 소단원의 학습목표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대단원 학습목표만 제시하고 있는데 대단원 학습목

표가 여러 영역의 학습목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문법 영역이 단원명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단원명이 학습목표를 포괄하는 명칭이었으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천재교육(김대행 외)교과서는 문법 영역을 국어와 생활국어 어느 한 곳에 편중시키지 않고 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매체 언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법 영역을 1학기에 대부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품사, 지시어, 사동과 피동 등 1학년의 문법 영역을 모두 한 학기에 학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고 있으며 게다가 이 모든 문법 내용을 한 단원에 배치하여 학생들이 이 단원을 배울 때 문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교과서는 많은 문법 영역을 대단원 하나로 통합하여 학습량이 방대하고 문법은 지루한 단원이라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천재교육(노미숙 외)교과서는 국어와 생활국어의 단원명이 일치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생활국어 교과서가 국어 교과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과서의 경우 국어와 생활국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영역 간의 통합을 중시하여 하나의 대단원에 여러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법 영역은 주로 대단원 속의 마지막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문법이 주가 되는 대단원은 찾아 볼 수 없는 것 또한 특징이라 하겠다. 문법 영역이 다른 영역 속에 묻혀 있어 문법 영역의 비중 또한 다른 교과서에 비해 매우 적음을 파악할 수 있다.

지학사(이용남 외)교과서는 국어와 생활국어의 대단원명이 일치하지만 소단원명을 달리하여 차별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어 교과서에서는 문법 영역의 학습 요소를 포함한 제재를 제공하여 읽기나 말하기 등의 표현 학습을 하게하고 생활국어 교과서에서 문법 영역의 지식 요소를 학습시키는 이원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생활국어에서는 문법 영역의 기본 지식을 학습하고, 국어 교과서에서는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읽기나 말하기 등 다른 영역과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엔컬처(윤여탁 외)교과서는 바로 앞에서 살펴 본 지학사(이용남 외) 교과서

처럼 국어와 생활국어의 대단원명이 일치한다. 그러나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앞의 교과서와는 차이가 있다. 단원별로 매우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품사 영역을 예로 들면, 국어 교과서에서 문법 영역 지식을 학습하고 생활국어 교과서에서 실제 연습을 해보는 형식을 취하지만 그 외의 단원에서는 생활국어 교과서에서 문법 영역의 지식을 습득하게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분석 과정을 통해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느낄 수 있었고 그 교과서 속에 해당 출판사만의 독특한 특징을 발견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교과서 한 권에서만 한 영역을 다루는 출판사와 한 영역을 국어와 생활 국어 두 권에서 함께 다루는 출판사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생활 국어 교과서를 활동북으로 사용하는 것과 국어와는 다른 하나의 교과서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리라 생각한다. 이는 문법 교육에도 관한 의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관규(2007:76)는 '실제 국어 생활을 중시하면서 그리고 학습자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문법 교육은 현재로선 통합적인 방법만한 것이 없는 것 같다[21]'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필자 또한 이 의견에 동의한다. 앞으로 8학년, 9학년 교과서가 계속 계발되고 출판될 것이다. 현재 교과서를 이용한 문법 교육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문법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역 간의 통합, 영역 내의 통합, 다양한 매체와의 통합 등등 이런 사항들을 더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교과서가 연구되고 집필될 것이 분명하다. 학생들이 문법 영역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위해서 여러 교수 · 학습 방법을 시도할 교과서를 앞으로 더 기대해 본다.

---

21) 이관규(2007), 「2007년 국어과 문법 교육과정의 개정 특징과 문법 교육의 방향」, 청람어문교육 36집, 청람어문교육학회.

제5장 결론

지금까지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편찬된 검정 교과서의 문법 영역을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교과서의 문법 영역을 분석하고 필자가 깨달게 된 점과 바람직한 문법 교육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문법교육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문제는 자주 지적되고 분석되어 왔다. 이를 수용하여 그에 대한 개선안이 계속 마련되고 교과서 또한 발전하고 있지만 문법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선정하고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사실 문법은 한 언어의 전반에 걸친 운용과 구성 원리에 관련된 규칙의 총체이므로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을 선정하는 가의 문제는 상당한 고민이 따른다. 문법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잠재 의식과 수준에 연계된 효율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는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같은 성취기준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교과서 간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남을 파악할 수 있다. 즉 2009년까지의 교과서는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학생이 같은 자료로 학습했지만 2010년부터는 배워야 할 항목이 같아도 그 부분을 배우는 시기와 자료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쓰이는 국어 교과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교과서가 아니다. 23종이나 되는 검정 교과서 중 한 가지를 채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학생들에게 학습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교과서를 선정해야 하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커진 것이다. 짧은 검토 시간 안에 수많은 교과서 중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과서를 선정해 내야 하는 부담감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의 국어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세밀한 교과서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분석을 통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검정 교과서들은 대부분 영역 간의 통합과 연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시도가 과하게 작

용하여 문법이 다른 영역 속에 묻혀 버린 경우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영역 간 또는 영역 내의 통합이 중시되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 통합 수준이 매우 중요하며 어느 한 영역이 다른 한 영역 속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짧은 시간 안에 문법 교과서가 이런 점을 완벽하게 반영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통합 시도가 꾸준히 지속되어야만 문법 교육의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고 문법 교수 · 학습 방법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문법 교육은 실제 국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국어 자료를 학습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즉 문장 중심보다는 담화 중심으로 된 자료로 진행되는 수업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통합적 교육이 문법 영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분리되어 있는 국어 교과서와 생활국어 교과서 역시 통합의 관점에서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통합의 측면에서 두 권을 연계시킨 교과서도 있었지만 예전의 국정 교과서처럼 아직까지 두 권이 분리되어 있는 교과서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필자는 국어 교과서와 생활국어 교과서가 긴밀히 연계되어 하나의 단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법 교육을 위한 것이고, 이 부분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학교 학생들의 국어 사용 능력이 갈수록 저조해지고 문법에 대한 거부감까지 팽배한 현실에서 문법 영역이 학생들의 생활에 들어 갈 수 있는 길은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할만한 살아있는 자료와 문법 영역의 다양한 교수 · 학습 방법의 개발일 것이다. 바람작한 문법 교육을 위해 학자들의 꾸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 결과, 즉 교육과정이 반영되는 교과서, 그리고 현장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교수 방법 등이 함께 발전해야 문법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중 문법 영역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자 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리 없다.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고찰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새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될 교과서를 분석해 보는 작업 또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현재 교육과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학생들을 고려한 양질의 교육은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이에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문법 영역을 살펴보고 마산 지역에서 채택된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법 영역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완벽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여러 교과서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다루다보니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문제점과 필자의 입장에서 교과서의 우수성을 따지지 못하는 데 따른 한계점도 보인다. 하나의 교과서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됨에 따라 장점만을 모아 만든 우수한 교과서가 계발될 것이라 보고 교과서 분석 등 실제적인 교수 · 학습과 관련된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참고문헌>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 국어, 도덕, 사회』,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7년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교육인적자원부(2001),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검정 도서 검정기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김대행 외(2010), 『중학교 국어 1』, (주)천재교육.

김보름(2008), 「중학교 생활국어 '국어지식'영역의 단원 배열에 대한 고찰」. 단국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형철 외(2010), 『중학교 국어 1』, (주)교학사.

노미숙 외(2010), 『중학교 국어 1』, (주)천재교육.

박영목 외(2010), 『중학교 국어 1』, (주)천재교육.

서성희(2003),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 지식' 내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현정(2006), 「교육과정 개정시안 문법 영역의 개정 방향과 과제」, 문법교육 제5집, 한국문법교육학회.

윤여탁 외(2010), 『중학교 국어 1』, (주)미래엔컬처.

이관규(2004), 「중등학교 문법 교육의 현황과 문제-국어 생활에 유용한 문법 교육이 필요하다.」, 새국어생활 14권 3호, 국립 국어원.

이관규(2007), 「2007년 국어과 문법 교육과정의 개정 특징과 문법 교육의 방향」, 청람어문교육 36집, 청람어문교육학회.

이병훈(2003), 「중학교 생활 국어 '국어 지식' 단원의 연구-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용남 외(2010), 『중학교 국어 1』, (주)지학사.

이은경(2009), 「'2007 개정 교육과정' 문법 영역에 대한 분석적 고찰」,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지룡 · 이은규 · 김종록 · 송창선 · 황미향 · 이문규 · 최웅환(2005), 『학교문법과 문법교육』, 박이정.

임칠성(2007), 「2007년 개정 문법 교육과정 검토」, 우리말교육현장 연구(창간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장주희(2005), 「국어 지식 영역의 단원 구성 및 학습 내용 배열의 적절성 연구-7차 교육과정 고등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예지(2006), 「생활 국어에 나타난 '국어 지식' 영역의 분석과 개선 방안=제7차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주리(2006), 「중학교 <생활국어>에 나타난 문법 영역 구성분석」, 이중언어학 제30호, 이중언어학회.

정혜승(2007),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비판적 점검」, 우리말교육현장연구(창간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최지현(2007),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비판적 검토」, 우리말교육현장연구(창간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허재영(2006), 『국어과 교과서와 교재 지도 연구』, 한국문화사.

허정연(2002), 「중학교 생활 국어 교과서 문법 단원의 평가와 재구성」,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